

## CONTENTS

### 1부

#### 풀밭을 열며

권두언	손성호 담임목사	04
초동의 기도	조윤희 권사	06

### 2부

#### 초동과 함께

영아유치부 찾팅	김미란 목사	10
2024 청소년부 소회(所懷)	김동현 집사	13
무대가 끝나고	이선옥 권사	15
신익호 원로목사님 내외분을 생각하며	김영진 원로장로	17
신익호 원로목사님 구순생신 축하기도문	故 최동익 원로장로	19
나의 어머니, 故 유정재 권사 추모의 글	박혜성 집사	22
故 신순복 권사 추모의 글	윤항정 권사	24
열린성경공부모임의 은혜와 소망	장창호 권사	26
유보화 권사님께	정하민 전도사	28

## 3부

### 특집 | 초동 79년, 믿음의 위대한 유산

초동교회 예배당의 건축학적 특징과 의미	나호천 장로	32
기억에 남는 우리 교회	청년부	38
초동교회와 나	곽화영 집사	44
나와 초동교회 이야기	김태현 집사	46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 믿음의 유산	김옥비 청년	48
성극선언	김동현 집사	51
봉사하는 교회	임하늘 목사	54
초동교회 창립 79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역사위원회(위원장: 전흥빈 권사)	58
초동교회 약사(略史) : <2021.1.~2024.10>	교회역사위원회	59

## 4부

### 초동문단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어린이부	90
詩 ‘가을’	차오성 권사	97
詩 ‘일흔 아흔 초동교회’	이소희 권사	98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순종 권사	99
‘아들을 장가보내며’	이선옥 권사	101
‘영육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천광 목사	103
‘산토끼 토끼야’	서동현 집사	106

## 5부

### 2024년 초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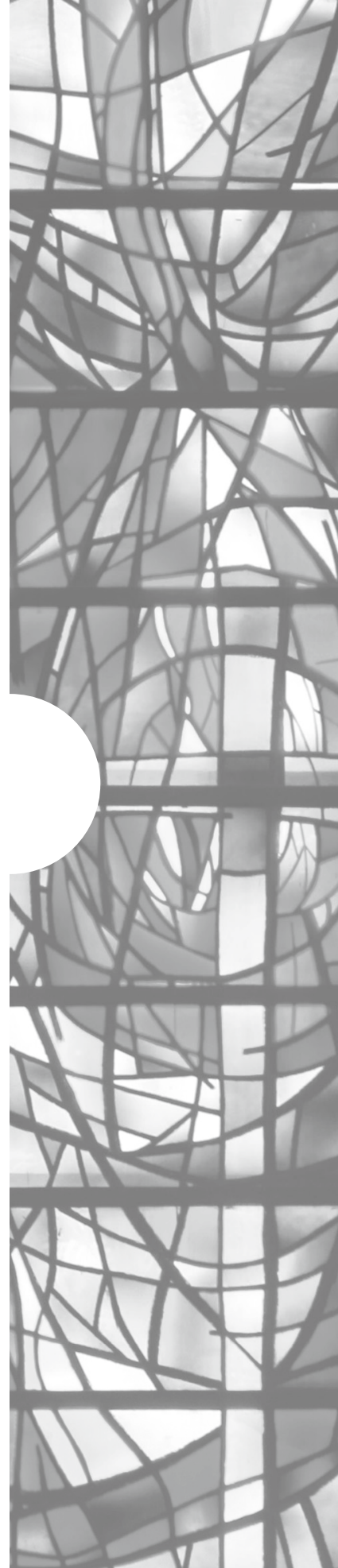
예배 및 행사일지		112
교우소식		116
편집후기	이선옥 권사	120

초동교회 풀밭 제163호

# 1부 풀밭을 열며

**권두언** 손성호 담임목사

**초동의 기도** 조윤희 권사



# 우리의 오늘이 초동의 내일



담임목사 손성호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힘들고, 앞이 막막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곁에서 혼잣말같은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가 ‘그건 별로 좋은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어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손 목사님, 하늘 한번 보세요. 맑고 청명합니다’ 맞습니다. 미래는 커녕 하늘도 한번 보지 않고 정신없이 살아버렸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은 일들을 그려가면서 천천히 걸어가세요.’

생각이 새로워졌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이 바로 나의 내일. 10대를 어떻게 살았는가가 20대를 결정하고, 그와 같이 30대를 어떻게 살았는가가 40대를 규정합니다. 살아낸 10년은 다음 10년의 내용이 된다는 걸 나이가 조금 들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들의 어제가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오늘'은 믿음의 선배들께서 모든것을 쏟아 부어주신 '어제로부터의 선물'입니다. 해서 오늘은 '반성과 다짐'이요 내일을 위한 '일보 전진'입니다.

<초동교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되새기며 80주년을 향합니다. 처음 부임하였던 해가 창립 67주년, 종로시대 40주년이었습니다. 한 권에서 '광야 40년 세월을 마쳤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시절의 시작인가'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부끄럽고, 모자랐던 기억이 전부입니다. 이제 또 한 권에서 '교회를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할 때도 되었지 않은가' 말씀하십니다. 듣고 새기자니 마음도, 어깨도 무거워집니다.

지금은 한 분 한 분이 초동교회인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고, 그 위에 무엇을 세워 내일을 열어야 할까요> 풀밭지면을 통해 마음으로 읽고, 듣고, 새기며 초등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디모데후서 3:14a)

올 한 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행하신 일, 사랑하신 일, 헌신하신 일 모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10)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2024년 5월 2일 여신도회 1일 기도회



조윤희 권사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의 몸 된 전에 나와 여신도회 기도회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동안 수많은 위기 가운데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부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많은 인재를 허락하셔서 세계에 우뚝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풍요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에 감사드리기 보다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핏값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여 이 땅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직접 관여하심으로 거룩한 영향력이 발휘되어 주님의 창조질서가 지켜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 일하지 않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역하게 하시고, 표를 구걸하는 부끄러운 정치인이 아닌 소신을 갖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게 하소서. 상대방을 짓밟는 매정한 정치가 아니라 사랑하고 포용하는 큰 정치를 하게 하시며, 편을 갈라 미움과 증오를 만들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의 국민 앞에서 솔선하여 희생하고 먼 곳을 내다보고 오늘을 참으며 낮은 데로 임하게 하옵소서.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에게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좌절과 절망, 그리고 당혹감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 주께서 용기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꿈꾸며 이상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며, 노인들이 존경 받고 어린이와 여성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업이 존중되고 어떤 일을 하든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이들이 인정받아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모습과 조건으로 태어나도 존중 받게 하시고, 서로를 품어주고 염려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허무와 공허, 우울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도박, 마약, 알코올 등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만연한 자살, 낙태, 살인과 같은 범죄와 부패 행위가 사라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의 능력을 주시며 모두가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많이 이웃들을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합니다. 황폐해진 북한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상승배와 전쟁준비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주셔서 평화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복음이 전파되고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의 희망의 걸음을 내디뎌야 하지만 여전히 삶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도했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눈물과 아픔을 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1-2]





초동교회 풀밭 제163호

## 2부 초동과 함께

**영아유치부 환팅** 김미란 목사

**2024 청소년부 소회(所懷)** 김동현 집사

**무대가 끝나고** 이선옥 권사

**신익호 원로목사님 내외분을 생각하며** 김영진 원로장로

**신익호 원로목사님 구순생신 축하기도문** 故 최동익 원로장로

**故 유정재 권사 추모의 글** 박혜성 집사

**故 신순복 권사 추모의 글** 윤향정 권사

**열린성경공부모임의 은혜와 소망** 장창호 권사



<영아유치부 이야기>

## 영아유치부 활팅!



김미란 목사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름을 붙쫓은 가을은 바쁜 사정 있는 건지 휘익! 하니 가버렸다. 어 느새 따스한 ‘온기(溫氣)’가 있어야만 하는 계절에 안겨있다. ‘입동’을 지나 ‘수능한파’라는 말이 있듯, 앞으로 따뜻함에 대한 간절함은 이 계절처럼 깊어가겠지..

‘인생길’에도 ‘온기’가 절실해 지는 시간이 있다.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온기’로 붙잡고 사는 것이 있다. 퐁퐁 얼어버린 삶의 얼음장을 깨고 녹여 다시 물이 되어 흐르게 할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있다. 과거를 향한 ‘그저, 그런 기억’이 아닌, ‘따스한 추억’으로 느낌 저 올 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각자의 ‘온기’이지 않을까? 내게도 이것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가을날 오후, 하교한 나를 데리고 아버지는 버섯을 따러 가자 하셨다. 이 사건 은 촌부 아버지께서 늦둥이 막내딸과 놀이해 주셨던 유일한 기억이다. 말라가는 가을숲 냄새, 바

람 부딪히는 소리, 불에 닿는 식은 공기의 느낌들..이 모든 것보다 사람 좋은 미소로 날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캡처 화면처럼 저장되었다. 이 기억은 내 삶이 시려울 때마다 온돌방의 온기가 되어 얼어 있는 나를 주물러 주고 녹여주었다. 아버지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한 장면의 기억으로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보살피고 계셨다.

초동교회 영아유치부와 함께 한지 어느새 아홉달이다. 우리 모두 여덟명이니, 아니 열명(이제 곧 태어날 아이까지 포함)이다. 모하, 현우, 예은, 소망, 서연, 영준, 연재, 벨티스, 모하동생, 예은이 동생..이상 10명의 친구들이 부모님, 선생님들과 함께 지낸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하동생, 예은이 동생 이렇게 두 생명을 보내 주셨다. 이 생명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영아유치부실에서 터졌던 감사의 탄성이 여전히 생생하다. 그러니까 우리 영아유치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일곱 살까지의 친구들이 있는 곳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실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은 저들의 삶에서 ‘기본생활습관’이라는 생의 발달 과업을 성취하기 좋은 최적기에 있다. 동시에 일생의 온돌방이 되어 줄 앞서 말한 ‘따스한 추억’을 비축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에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의 것은 부모의 훈육방침이 결정적이라면, 뒤의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타인인 교회 공동체 모두의 과제이고, 이를 마주함에 있어 ‘진심’이어야 한다. 이미 초동교회라는 믿음의 식구들과 그것도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가치로운 생의 자산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그 온돌방 같은 따스한 추억의 힘을 넉넉히 감당해 낼 것이다. 집안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부모님과 형제들을 전도해야 했던 내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영아유치부 친구들은 부럽고 또 부러우며 그리고 또 부럽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만신창이 되었을 날도 분명 있을 것이지만, 멀리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예배에 늦지 않으려 힘써 달려온 부모님들의 모습이나, 또 젊음의 시간이 요구하는 삶의 과제들로 가파를 호흡을 쉬면서도 아이들을 만나면 세상없는 밝음과 환대로 아이들을 맞이해 주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숙연해진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생의 추운날을 녹일 온돌의 추억으로 저장될 것들은, 물리적인 조건들이 아닌, 나를 바라봐 주던 이들이 ‘따스함’일 것이기 때문이다. 밝음, 미소, 친절함, 다정함, 부드러움, 경청...

## 2부 초등과 함께

그러기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들과 예배자로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려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너무나 귀하다. 사람인 내 마음도 이러한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귀하시겠는가!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현재를 '초동교회 영아유치부'에서 함께 하고 있다. 이 '함께함'이 주님이 맡겨주신 아이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따뜻한 생명의 추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 노력할 것이다.



영아유치부 핫팅!!

<청소년부 이야기>

## 2024년 청소년부 소회(所懷)



김동현 집사

아주 작고 희미하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 할 뿐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있다. 초동교회 교회학교 청소년부의 이야기이다. 그 존재는 너무 작고 초라해서 마치 없는 듯 하지만, 매 주 일 오전 11시 2층 난곡홀을 채우는 아이들은 있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분명히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신다. 2024년을 청소년부 교사로 살아가다가 끝자락에서 드는 소회는 두가지 감정이 교차한다. '고마움'과 '희망'이다. 한 학년에 한명 이상의 아이들이 없고,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로 적은 숫자가 출석하는 현실에서 동네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동네교회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멀다면 먼길을 와서 난곡홀을 채우고 예배하고 교제함에 충실해 준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도심교회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 해도 그것은 쉽지 않다. 예전 내가 청소년부 시절 때처럼 당연하듯 부모님과 교회에 오기보다는 본인의 선택과 의사가 더 우선시되는 시대로 바뀐 시대의 흐름에서 보아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아이들의 헌신에 가까운 참여가 있었기에, 청소년부는 그 이름을 초동교회 안에 유지할 수 있었고, 여름행사와 겨울행사를 진행 할 수 있었으며, 교회의 다음이 없어지는 학교로

## 2부 초등과 함께

따진다면 폐과와 다름없는 상황을 피해 내년을 이야기하고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무엇을 해도 빛도 티도 나지 않고 티도 나지 않으며, 늘 결핍감과 초라함을 느껴야 했을 청소년부 선생님들, 임성환부장님을 비롯한 차장님과 청년 선생님들의 희생 또한 지나칠 수 없는 고마움일 것이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기에 청소년부의 한해가 사고나 어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은혜로 지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지면을 빌어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내년에도 함께 할 선생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담은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제 곧 새해가 밝을 것이고 교회도 교회학교도 많은 것이 달라지고 바뀔 것이다. 기도하기는 새해에는 초동교회 청소년부의 부흥을 기도해 본다. 내적 부흥이 중요하나 외적 부흥이 중요하나의 논란 같은 것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는 교인들의 자녀들 뿐 아니라, 종로를 걷는 아이들을 불러모아 끌어 안을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길 기도해 본다.

그것은 도심에 세워진 초동교회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니, 해야만 하는 사명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올해 참 많이 했다. 아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날로 그 양이 늘어가고 성인 못지 않은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작 아이들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 청소년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12년째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교회가 묵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삶을 놓는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아이들의 자살이란 그 아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이 스스로 살아내기에 지옥과도 같은 삶이고 버텨내기엔 사막 같은 세상이기에 버텨내지 못해 선택하게 되는 마지막 탈출구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삶이 지옥 같은 혹은 세상이 사막 같은 그 아이들이 초동교회에 찾아오면 언제나 주의 위로를 받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가는 곳이 되는 청소년부이길 기도해 본다. 그것이 80주년과 함께 새롭게 나아갈 초동교회와 청소년부에게 주어질 사명 중 하나라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 청소년부를 만드는데 2025년 한해가 온전히 쓰여지기를 기도하며, 그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아울러 간절히 기도한다.



<성극 이야기>

## 무대가 끝나고



이선옥 권사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고, 성극 마리아, 마르다가 막을 내렸다. 무대에 올리기까지 여러 번 각본 수정을 거쳐 배우를 캐스팅하고 대사를 익히며,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문턱 11월 3일(주일) 선보인 김동현 집사님의 두 번째 작품이다. 2023년 첫 번째 작품 [위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역시 난곡홀(교회 2층)에서 열렸는데, 무대 장면을 두 청년이 벽에 그림막을 부쳤다 떼기를 반복하며 수고했던 모습이 기억난다. 이번에는 전동커튼 설치, 전문 조명팀과 음향팀, 핀 마이크 착용등으로 한층 더 대사전달에 명확함을 이룰 수 있었다. 배우들 연기도 쌓여진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넘어 세련된 모습이었다.

특히 마리아역을 소화해 낸 문신희 청년, 마르다 역을 소화해낸 지주현 집사님의 암기력과 자연스러운 표정, 대사 전달력은 압권중의 압권이었다. 또 빛나는 조연들, 송은혜 집사님, 엄경숙 권사님의 감초 연기를 빼 놓을 수 없다. 무대에 재미와 생동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게다가 천사 임재현

## 2부 초등과 함께

학생, 이소영 집사님은 이미 기성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주대명 장로님 손자이기도 한 주용재 어린이의 깜찍한 연기를 보며 초동교회 성극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작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여신도회원들이 일상속에서 늘 고뇌하고, 고민하는 내용이 집약되어 있었다.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믿음생활, 봉사활동등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삶속에서 어떻게 소화시켜야 될지가 ‘은혜를 흘려보냄’이라는 주제와 접목되며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작년 성극에서는 영상을 남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녹화되므로 안도하게 되었다. 공연 전날, 늘 기도와 후원으로 응원하시던 손성호 담임목사님께서 최종리허설이 끝나고 사주신 갈매기살 고기파티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초동교회 남신도회, 여신도회의 후원, 부교역자들, 의자를 세팅하는데 애쓰던 청년들, 장로님들, 모든 교우님의 물심양면의 기도와 응원이 없었으면 이를 수 없는 쾌거였다. 미디어문화위원회를 이끄는 데 늘 힘주시는 임하늘 목사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무대 서막을 알려주신 김태현 집사님께도 감사드린다.

내년 초동교회 80주년을 맞이하여 “김동현 집사님께서 이미 대본 준비중이라는 소문이 있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부족하고 미약한 저희들을 이끄셔서 주님 뜻 가운데, 지체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문화선교의 일환으로 성극을 올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 신익호 목사님 내외분을 생각하며



김영진 원로장로

## 신익호 목사님의 90세 생신을 축하합니다!

1. 신익호 목사님은 한신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셔서 일본, 미국,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초동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셨다가 동부교회 담임목사님으로 한동안 사역하시고 1977년 조향록 목사님이 한신대 학장으로 취임하자 초동교회 담임목사님으로 오셔서 이후 25년 동안 신실하게 목회하신 뒤 65세에 정년을 맞아 퇴임하셨습니다.

2.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에 초동교회 담임목사님으로 오신 신익호 목사님은 주님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의 귀감으로 전혀 손색없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25년간 한결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새벽기도를 인도하셨고 강단에 오르시면 항상 눈을 감고 묵상한 뒤 하나님의 말씀을 고고히 선포하셨습니다.

3. 10년 된 낡은 소나타를 타시며 명륜동 좁은 골목의 20평 초라한 사택에 사시면서도 일말의 내색 없이 오직 감사와 자족의 마음으로 넉넉히 교회와 교우를 품으신 목사님, 공사를 막론하고 그 입에서 어떤 말 실수 하나 없이 태산처럼 진중하셨던 그분은 세상 부귀와 욕심 없는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요 고상한 지성을 지닌 신사이셨습니다.

## 2부 초등과 함께

4. 모세의 고별설교처럼, 목사님의 고별설교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고 가슴에 뜨거우니 "주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어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부활의 꿈을 꾸십시오.", "믿는 자들의 최종 목표는 인생 너머에 있으니 부디 세상 너머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잔잔한 목소리로 심령의 사후를 토하시는 목사님은 참된 성직자의 귀감이십니다.

### 원영자 사모님을 생각하며

1. 언제나 말없이 미소 지으시며 따스하고 넉넉한 가슴으로 교우들을 품으시던 분,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60년 동안 남편을 묵묵히 뒷바라지해 오신 분, 좁고 축고 불편하고 낡은 한옥 사택에 아시면서도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는 분, 손수 빵을 굽고 음식을 만들고 과일을 깎아 교인들을 정성껏 손대접 하시던 분

2. 세상 단장 하지 않으셔도, 사랑과 믿음과 염치와 정절로 단정하셔서 늘 고우신 분, 허영과 사치를 몰라 10년 전의 옷을 마치 어제 산 새 옷처럼 입으시는 검소하신 분, 교인들의 경조사에 웃고 우시며 빠짐없이 봉투에 정성을 가득 담아 위로하시던 분, 언뜻 없는 것처럼 보여도, 돌아보면 항상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모의 귀감이여라.



# 신익호 원로목사님 구순생신 축하기도문



故 최동익 원로장로

2024년 3월 10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익호 원로목사님의 구순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 모여 기도합니다. 초동교회가 <중구 초동 시대 27년>을 거쳐, <종로구 돈의동 52년, 교회창립 79주년>의 해를 맞이하는 동안, 여섯 분 담임목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기장 교단의 기수(旗手) 교회>로 자리 잡고, 화목한 교회로 자라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2부예배를 마치고, 제4대 담임목사님으로 1977년 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24년 9개월간 섬기신, 신익호 원로목사님의 구순 생신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귀히 쓰시는 목자를 초동 선전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1954년 12월부터 1976년 5월까지 21년 6개월간, 목양일념(牧羊一念)으로 섬기시던 제3대 조향록 목사님께서, 한신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시기 위해 부득이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자, 조향록 목사님을 도와 부족사로 5년간 시무하신 신익호 목사님을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조향록 목사님을 이어 교회의 성장부흥기(成長復興期)를 이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 2부 초등과 함께

신익호 목사님은 부임하시자마자 교회 회지(會誌), “풀밭”을 창간하시어 교인들의 화목과 친교, 문예 진흥을 도모하고, 교회 역사기록의 보고(寶庫)로 자라도록 이끄셨습니다. 1987년 8월에는 도서관과 독서실을 개관하여,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1991년 4월에는, “햇빛 조기교실”을 개교하여, 장애아동의 치유 및 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1975년 10월의 교회창립 30주년 기념 주일에는, <향후 10년 내 10개 교회 개척방침>을 천명하고, 국내에서 초강교회, 강동교회, 천세교회, 천송교회, 휴암교회의 여섯 교회, 해외에서는 아프리카 케냐에 카사라니초동교회, 중국 연변 조선족 교회로 장항촌교회, 인도 뉴델리에 베데스다 교회의 세 교회, 합하여 모두 아홉 개의 개척교회를 세우도록 은혜 내려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운데, 안성수양관과 안성공원모요원을 건축하여, 교회의 지경(地境)을 넓히셨습니다. 조상을 고이 모시고, 가정을 따뜻이 품는 신앙공동체로서, 신앙의 뿌리와 요람을 겸하게 하시고, 시간과 영원을, 한 공간에서 이어지게 하여, 지상과 천국을, 한 공간에서 체험하게 하는, 전교인의 영성훈련장을 마련하게 하셨으니, 초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1935년생인 신익호 목사님은 교단 헌법상 조기사임이 허용되는, 65세가 되시는 새 천년 뉴 밀레니움, 2000년 1월에, 조기사임의 의사를 밝히시고, 교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1년 11월에 시무사임하시고, 자원은퇴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후진양성을 위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신익호 목사님은, 초동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을 떠나셨으나, 보다 넓은 사회선교 영역에서, 아직도 활발하게 하나님의 선콜르 수행하고 계십니다. 2002년 3월에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05년 10월에는 생명의 전화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월드 네이버스 세계선린회 명예이사장으로 추대 받으셨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조향록 목사 평전발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받으시고, 2020년 5월에는, 한신대학교에서 <제26회 한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신익호 목사님을 초동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온유 겸손하시고, 말씀대로 생활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자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행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하고, <숲이 깊으면

등지가 많다>고 하였는데, 목사님 주변에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이, 언제나 모여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익호 목사님께 너무나 큰 사랑의 빛 진 초동교회가, 오늘 목사님과 원영자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을 가까이 돕는 원로목사님들을 초청하여, 구순 생신 축하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하시어 목사님의 90평생의 사역과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에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사모님과 슬하의 3남매를 비롯한 목사님의 온 가정의,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게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나의 어머니, 故 유정재 권사님을 추모하며



박혜성 집사

어머니가 본격적인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은 불과 세달도 안된것 같습니다. 그 이후,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셨고 늘 귀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인민군이 온다, 전쟁이 터진다 등의 심한 공포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어린시절 당시 상당한 지식인이셨던 할아버지가 공산군을 피해 항상 숨어 사시고 결국 납북되어 처형되시기 까지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는 근본적인 삶의 밑바닥에 늘 불안과 공포가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편찮아 지신 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시절 머리가 좋고, 똑똑하시며 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망과 노력, 완벽주의자, 극도로 오감이 발달된 예술가와 같은 면모를 보이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동료 교사들을 만나면 "너는 저런 능력있고 훌륭한 어머니를 두어서 얼마나 좋으냐, 부럽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이며 배움에 있어서는 끝이 없으셨던 어머니는 60세가 넘어 영어회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하셔서 불과 일어난 후 엔가 독일에 오셔서 저희 지도교수님과 영어로 대화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감이 너무 예민하게 발달하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신발을 사러갔는데 신발 양쪽이 똑같지 않다며 하루종일 짝맞는 신발을 사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사고 집에 돌아온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감각이 뛰어나고 너무나 세련된 어머니가 전혀 옷이

나 외모에 신경을 쓰지않아 너무나 당신과 다른 저 때문에 늘 속썩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세상의 모든 음악을 즐기시는 분, 귀가 너무 좋으셔서 손녀인 예준이가 피아노 칠때 가장 신경쓰이는 평은 단연 외할머니 입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늘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과연 엄마가 되어도 우리 엄마와 같은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이화여대 사회교육과를 나와서 평생 교사로 지내셨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엄마의 궁극적인 꿈은 시인이었습니다. 엄마의 예술적인 유전자는 저희 딸 셋에게 그리고 손녀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극도로 예민한 분이셨기에 어린시절 전쟁의 기억이 엄마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엄마를 지탱한 왕성한 삶의 원동력은 깊은 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걱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딸 셋을 키우는 동안 엄마는 그것을 늘 밝고 유머러스하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위장하셨던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희 딸 셋을 훌륭하게 잘 키워주시고 잘 살수있게 만들어주신 사랑하는 엄마에게 정말 뭐라고 다 감사해야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의식을 잃어가기 직전 엄마의 딸들인 저희 세자매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알지요? 하며 소리쳤을때, 연락하신 엄마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요양병원에서 엄마의 지인에게 보내신 카톡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떠나시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이런 고마운 친구들을 두고 떠나려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많은 이야기들이 추억이 되어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운 친구들이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부디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故 신순복 권사님을 추모하며



윤희정 권사

신권사님..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러봅니다. 그 동안 잘 계셨지요? 초등교회에 어르신 권사님, 한나회에서 대들보 기둥이셨던 분,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과 헌신 봉사의 열정, 그 아름다운 손길, 인격과 성품, 겸손과 온유, 인자하심, 다 갖추신 권사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베푸신 선한 행실과 사랑의 결과..몸이 아프시면서 교인 심방, 장례식, 병문환, 어디 한 군데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찾아 다니셨던 권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권사님은 사랑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참으로 많은 교우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시고 존경 받으시며, 훌륭하신 권사님 잘 사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사 가시면 옆동으로 이사하셔 사신 권사님도 계시고, 신 권사님 옆에 다세대로 이사해오신 권사님도 있으시고, 아프시면 신권사님이 차로 병원에 모시고 가시고, 죽, 반찬등 다 보살펴 주시면서 불평, 불만등 힘든 내색 한번도 안하셨습니다. 형제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본 받는 만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자매들 결혼도 시켜 주시고, 추위에 옷을 얇게 입고 오시면 코트도 사주시고, 발이 아픈 분에게는 신발도 사주시고, 권사님은 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그 사랑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거예요. 젊은 집사님, 연로하신 권사님들 누구나 다들 좋아하시고, 인기도 많으셨어요. 어느 권사님은 신권사님이 안 계셔서 교회에 와도 재미가 없다고 제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나회 권사님들 말씀이 신권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은 좀 더, 3년만이라도..90세까지만 사셨으면 좋았을텐데.. 하시며 그리워 하시면서 보고 싶으시다고들 하셨습니다. 권사님 베풀어 주신 사랑, 흘러 보내지 않고 평생 잊지 않고 고이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권사님은 어쩌면 이 세상에 없는 효녀, 효자를 두셨습니다. 권사님 말씀 한 말씀이면 순종, 복종..보기도문 자녀분들, 본 받을만 합니다. 자녀분들 가정교육 참 훌륭히 잘 시키셔서 권사님 간호를 두 남매님이 요양보호사도 없이.. 미국에서 오셔서 하루도 쉬지 않고 병원으로 곧 바로 가서 본인도 아파하면서 권사님 간호에 지극 정성으로 긴 시간을 교대해 가면서 간호해 드린 모습, 참 감동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권사님은 항상 본인보다 남을 먼저 챙겨주시고, 몸소 보여 주시고, 실천해 가시는 권사님. 그림습니다. 제 마음은 권사님하고 이틀 밤만 같이 자면서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 나누며 추억을 더듬으며 자고 싶었는데...박혜련 권사하고 함께 간호해 보려고 아드님한테 이야기하니, 완강히 안 되신다고 하여 들어갈 틈새를 못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나 한 자매였고, 때론 언니처럼 제 속에 있는 말을 다했습니다. 권사님하고 장안평 차 안에서 말씀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헤어지고는 하였지요. 권사님이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을 생각하고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는 시간이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크셨을텐데요. 잘 견디시고 가족들 사랑과 존경 한 몸에 받으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권사님!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못 이룬 하나님의 소명은 남겨진 이들에게 남겨주시고, 부디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윤향정 올림



<열린 성경공부 이야기>

# 열린 성경공부모임의 은혜와 소망



장창호 목사

초동교회의 ‘열린성경공부모임’. 우리끼리는 ‘성경사관학교’라 부른다. 매주 아침 10시 아브라 함실에서 시작된다. 개강 초기에는 먼저 온 학생들끼리 담소를 나누는 풍경이었다. 이제는 성경 선생이신 손성호 담임목사님께서 들어오시기 전까지 이선종 집사의 은혜로운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의 말씀을 먹기 전의 경배와 찬양 시간인 셈이다.

당초 목표는 올 한해에 신구약을 마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적 지식을 한가지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의 열정 넘치는 강의 덕분에 진도는 내려놓고, 더할 나위 없는 알 찬 공부가 되고 있다. 해서 지난 12월 1일 현재 역사서 중 ‘사무엘하’를 공부하는 중이다. 문제풀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긴 하나 목사님께서서는 문제지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의 배경과 관련 지식을 동원하여 설명해 주시기에 말씀강해에 가까운 수준의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성경사관학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바다이다. 2부 예배 시간 전부터 말씀의 한가운데로 흠뻑 빠지고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맘 속에 들어와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다. 예언의 구약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신약을 넘나드는 성경 읽기와 핵심 구절을 함께 읽어나감으로써 공부의

깊이가 한결 더해지니 더욱 은혜다. 최근에 공부하는 가운데 각자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까지 허락하시니 더 큰 은혜를 누린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과 지명이 가지는 뜻을 배우는 것도 은혜다.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인물과 지명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 하나님의 섭리에는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음을 깨닫게 되니 은혜다. 이름값이 갖는 의미와 실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영육의 삶을 통해 배우는 지혜와 진리, 또 그것을 통해 현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와 반응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니 은혜다. 위대한 인물들인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사무엘, 사울, 다윗이 성경의 어느 한 단면의 주인공으로 소개되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다. 저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이 은혜다.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특권을 부여받고, 심지어 예수님의 친구됨을 허락받았으니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이다.

성경사관학교를 통한 말씀의 한없는 은혜에 붙들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갈망한다. ‘주일교인(Sunday Christian)’이 아니라 진리, 은혜,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가정, 직장, 공동체) 속에서 빛의 자녀로, 믿음의 생활화로 ‘평일교인(Everyday Christian)’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우리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성경사관학교의 지속적 성장을 기원한다. ‘새로운 살 길’<sup>1)</sup>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내기를 갈망한다.

열강해 주시는 손성호 담임목사님과 교재 준비해 주시는 임하늘 부목사님과 교역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참 평강하기를 간구드립니다.

---

1) 히브리서 10장, 특히 요한계시록 설교시 손성호 담임목사님께서 ‘이기는 자’로 살아내기를 강조하시면서 자주 인용하신 것으로 기억함.

## 유보화 권사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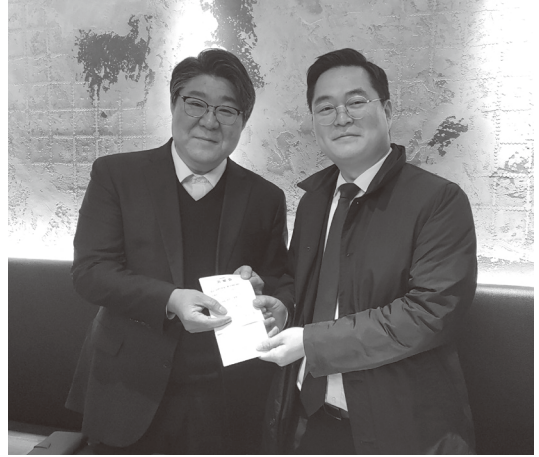
정하민 전도사

안녕하세요. 11월 27일날 손성호 목사님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 받은 정하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살다가 1998년도인 제 나이 9살에 중국으로 탈북하여 2002년까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총 2번의 강제 복송을 당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를 거쳐 2003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중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제자 양육을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은 저의 눈앞에서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복송을 당하셨습니다. 북한 감옥에서 고위 간부가 “여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일어서라”고 했을 때 아버님은 믿음으로 일어서셨습니다. 그 결과 정치범 수용소 13년 판결을 받으셨고, 2002년도에 온갖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하시다가 수용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한국에 입국한 후 저는 교회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상처와 아픔들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선교와 민족복음화를 위한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2017년도에 장로회신학대학교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신학대학원까지 마치고 남한 교회에서 목회자로 훈련받고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북한이 복음으로 열렸을 때 저의 고향으로 올라가 교회를 재건하고, 신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향후 4~5년 어간에 남한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탈북민들과 남한 주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남북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리적인 통일을 허락하실 때 그들과 함께 북한으로 올라가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해주신 귀한 교회재건 장학금 300만원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것이라곤 하나님께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 중보 하는 것밖에 없으며, 제가 예수 잘 믿는 목회자로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을 통일되게 하는 일인 줄 믿고 열심히 배우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정하민 올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3-4]



초동교회 풀밭 제163호

## 3부

# <특집> 초동 79년, 믿음의 위대한 유산

**초동교회 예배당의 건축학적 특징과 의미** 나호천 장로

**기억에 남는 우리 교회** 청년부

**초동교회와 나** 곽화영 집사

**나와 초동교회 이야기** 김태현 집사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 믿음의 유산** 김옥비 청년

**성극선언** 김동현 집사

**봉사하는 교회** 임하늘 목사

**초동교회 창립 79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역사위원회

**초동교회 역사(略史): <2021.1.~2024.10.>** 교회역사위원회



## 초동교회 예배당의 건축학적 특징과 의미



나호천 장로

내년이면 초동교회 창립 80주년이 되고, 현재의 예배당을 봉헌한 지 53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초동교회 예배당은 참 아름답고 거룩한 분위기가 넘치는 예배당이다. 그러나 예배당 전반에 걸쳐 그 의미를 아는 교인들이 적어서 선배들로부터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전하고자 이 글을 쓴다.

초동교회는 1945년 광복 후, 초동에서 일본인들이 예배드리던 초동의 약초교회(若草教會)를 인수하여 창립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교회는 불타고, 수복 후 천막교회, 판자교회를 거쳐, 1958년에 벽돌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이후 서울 도심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교회 부지를 한국 자동차보험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교회를 종로3가(돈의동)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당시 3대 담임목사이시던 조향록 목사께서는 도심이면서 지하철이 통과하는 등 교통이 편리하고, 민족이 얼이 숨 쉬는 종묘 근처 돈의동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고, 이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조향록 목사는 유희준 박사(당시 한양대 교수)에게 설계를 의뢰하였고, 선교센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빌딩형 예배당을 설계하였다.





## 1. 선교센터를 지향한 빌딩형 예배당

지금의 초동교회 예배당이 봉헌된 1972년까지 예배당을 빌딩형으로 건축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은 빌딩형 예배당이 많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6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예배당 건물은 그 자체로도 화제거리였고, 이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지금 초동교회의 위치는 서울 도심에 지하철이 3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다른 교회에서 매우 부러워하는 위치이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당시 종로3가 (속칭 종삼)는 환경이 매우 좋지 못하였던 곳이다. 예배당 건물은 다목적 선교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지하는 소극장으로, 1층의 북쪽은 지역주민을 위한 목욕탕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틀은 키보다 높게 설치하였고, 2층은 소강당으로, 3, 4층은 선교센터 사무실로, 5, 6층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목욕탕 인허가 불허, 교회의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선교센터로서의 사용하지 못하고 공간을 임대하다가, 2008년부터 임대사업을 종료하고, 예배당 건물 전체를 교회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2. 앞드려 기도드리는 모습의 예배당

예배당의 전체적인 모습은 초동교회의 초(草)자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디자인하였고, 종탑의 종 세 개는 종로3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내부 디자인은 앞드려 기도드리는 모습으로, 천정이 높은 디자인의 예배당이 건축되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 깃들어 있다.



### 3. 노아의 방주를 본뜬 창틀

초동교회 예배당의 창문은 구조가 특별하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뜻으로 노아(Noah) 방주(Ark)의 컨셉트를 도입하여, 노아의 방주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는 창문은 없고, 하늘을 향한 창문만 설치하였다. 벽면에 십자가 창을 설치하였는데, 오후에 십자가 창을 통하여 햇빛이 예배당 내부를 비추게 될 때에는, 벽찬 감동이 차오른다. 6층 당회장실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리 위에는 하늘을 향한 창을 설치하여 하늘과 교감하기를 바랐고, 예배당의 높은 천정에는 은하수를 상징하는 별 등(燈)을 설치하는 등, 하늘 뜻을 바라는 소망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다.



### 4. 개신교회 최초의 스테인드글래스

예배당에는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로서는 최초로 스테인드 글래스를 설치하였는데, 특별히 독일에 주문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였다. 스테인드 글래스 안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혈이 붉은색 카페트의 제단을 통하여 예배당 바닥까지 흘러넘치고, 성도는 그 보혈 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상징하여, 바닥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와인색 타일을 깔아놓은 것이 특징이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후 예배를 드릴 때에 스테인드 글래스를 통과한 빛이 예배당 내부를 비칠 때 그 아름다움과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 5. 독특한 코노파에움



초동교회 예배당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왜 벤즈(Benz) 심볼이 교회에 있느냐고 궁금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유럽에서 대주교가 있는 바실리카(Basilica) 교회에서 대주교의 의자 위에 설치한 코노파에움(Conopaeum)을 디자인한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 디자인이 벤즈(Benz) 심볼을 닮은 것이다. 또한 코노파에움(Conopaeum)은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이크 없이도 소리가 멀리 전달될 수 있는 음향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 6. 뛰어난 음향효과

예배당 내부는 천정이 높은 장방형의 설계로 음향이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벽면의 위쪽은 소리의 반사가 잘 되는 재질을 사용하고, 벽면의 아래쪽은 요철(凹凸)나무로 만든 특수 흡음재를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적절한 잔향이 남아있게 하는 어쿠스틱 효과를 기대하였고,



정면에서 노래를 부르면 소리가 앞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초동교회의 음향은 앰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내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외부 연주단체에서 녹음을 위하여 공간대여를 신청하기도 한다.

## 7. 삼위일체와 24 장로를 상징하는 조명



예배당 봉헌 37년이 지난 2009년, 건물 시설에 낡은 곳이 많이 발생하여 건물을 대수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예배당의 조명을 밝히기 위하여 1구(球) 전등 20개였던 조명설비를 3구(球) 전등 24개로 교체하였는데, 24개의 전등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를 상징하며, 3구(球) 전등은 3위 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도록 의도하였다.

## 8. 동서방향의 십자가

1972년에 돈의동 예배당을 건축할 때 종탑을 세우고, 종탑 위에 십자가를 설치하였는데, 이 십자가는 남북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 세운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았을 때에 교회의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조명도 없어서 십자가를 찾기가 어려



웠다. 그래서 2023년 5월 교회 지붕에 조명을 갖춘 동서방향의 대형 십자가를 세워서 교회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는데, 크레인으로 십자가를 올리고, 십자가의 점등식을 가졌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린 교인들도 많았다. 지금은 밤에도 교회의 십자가와 조명을 갖춘 교회 입간판이 주위를 밝히고 있다.

## 9. 설교단의 낡은 카펫

교회의 리모델링을 한 후 2015년 무렵, 전체적으로 예배당의 카펫을 교체하였는데, 담임목사님의 의지로 설교단 발판의 카펫은 교체하지 않았다. 조향록, 신익호, 강석찬 선대 목사님들께서 서서 말씀을 전하시던 뜻깊은 발판의 카펫을 교체하기보다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지금도 많이 낡고 검게 변색된 이 카펫을 볼 때에는 선대 목사님들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리고 큰 감동이 밀려온다.



## 10. 당회장실과 연결되는 나선형 계단

우리 교인 중에도 이 나선형 계단의 존재를 아는 분은 극히 드물다. 과거 중세 시절, 유럽의 큰 교회에서는 사제(목사)와 교인들 사이에는 넘지 못할 구분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제(목사)는 출입하는 통로도 따로 있었다고 한다. 현재의 예배당을 설계하신 조향록 목사님과 유희준 박사는 이 전통을 살려서, 목사는 6층 당회장실에서 일반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이 통로를 이용하여 바로 예배당으로 입장할 수 있는 나선형 계단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기로 조향록 목사님 이하 역대 담임목사님께서 이 계단은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그래서 2009년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통로는 폐쇄하게 되었지만 그 형태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상으로 초동교회 예배당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우리 초동교회의 과거 역사는 대단한 것도 많았고 자랑거리도 많았다. 예배당 건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의미도 남다르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개척자적인 그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수단은 변할 수 있어도, 복음의 정신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된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 기억에 남는 우리교회

청년부

초동교회 80주년을 기쁨으로 축하하며, 그 동안 교회의 일원으로서 청년부가 내·외적으로 함께 해온 “기억에 남는 우리 교회”에 대해 마음을 모아 보았습니다.

## Q1. 초동 청년부로의 첫 걸음은 무엇이고, 또 이곳에서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 김옥비 - 성경공부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에 학사에 입사하며 초동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김옥비입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어린이부 교사로, 현재는 영아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청년부는 2024년에 '소그룹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기 성경공부 팀은 저를 포함한 간혜원, 김요한, 손혜운 청년, 그리고 한신희 차장님과 함께 총 5명으로 시작했는데요! 5월부터 7월까지 매 주일마다 1시간씩 모여 박지은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한 주간의 숙제를 검사받고, 간단한 쪽지시험을 보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3개월의 시간동안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기 성경공부 팀의 성공적인 마무리 이후, 지난 10월 27일부터는 2기(김찬, 문신희, 박소영, 박소운, 정은지)가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경공부 팀이 3, 4, 5기로 계속해서 쪽 이어질 수 있도록 초동 가족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ㅎㅎ



### 정다희 - 청년주일

안녕하세요, 2024년 봄에 학사에 입사하여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정다희입니다. 초동교회에 다니게 된지 2주 만에 청년주일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특송을 준비하면서 저의 신앙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작은 교회, 청년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교회를 다녔는데, 많은 청년들이 있는 초동교회를 와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 김벼리 - 영아유치부 교사

안녕하세요, 2023년 초동학사에 입사하여 영아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벼리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영아유치부 교사의 역할을 맡아, 그 중요한 길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막 10:15)”고 하신 말씀처럼 아이들이 드리는 순수한 예배를 통해 제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늘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초동교회를 통해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귀한 발걸음이 쌓여 아이들의 믿음의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 김찬 - 여름 수련회

안녕하세요, 저는 2024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통해 초동 청년부에 나오게 된 김찬입니다. 초동에 먼저 다니기 시작한 동생 김벼리가, 초동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에 초대했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참여했지만 모두들 어색함 없이 잘 챙겨줘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끝난 후에 서울로 이직해 초동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도 걱정했지만, 교회 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초동 청년부와 함께하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함으로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 문신희 - 성극

안녕하세요, 저는 학사를 통해 초동에 들어와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문신희입니다. 올해 교회 생활에서 가장 감사했던 일 중 하나는 성극팀이 문화사역부 안에 소속된 후 첫 성극을 올린 일입니다. 작년, 청소년부 교사였던 김동현 집사님과 제가 뜻을 모아 만든 성극팀이 어드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꽤나 자리 잡았고, 그렇게 작년에 이어 올해의 성극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성극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김유진 - 어린이부 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친구인 문신희 청년의 소개로 초동 청년부에 처음 오게 되었고, 현재는 어린이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어린이부 교사로 봉사하며 드러나지 않은 이들의 헌신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은 언제나 아이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었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공과공부나 여러 활동을 인도하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힘썼습니다. 초등부 교사로서 어린이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로웠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순수한 생각과 행동을 보며 저 또한 많이 배웠고 더 모범이 되는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비록 주일 하루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있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은혜로웠고, 이러한 교사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간혜원 - 청년부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학사에 입학하며 초동에 처음 오게 된 간혜원입니다.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를 떠났지만, 여전히 초동 청년부 회장으로서 초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으로 서울에 올라와 처음 초동에 왔던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직장인이 되어 청년부에는 후배와 동생들이 늘었습니다. 2024



년도에 회장을 맡으며 감사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초동교회를 저보다 훨씬 오래 다닌 청년들도 많고,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굳건한 신앙심도 있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를 돌아보면 저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청년부에서 보냈습니다. 청년들은 언제나 서로를 환영해주었고, 목사님을 비롯한 부장님과 차장님께서도 든든한 조연자로서 도와주셨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사랑으로 감

싸준 청년부 모두에게 많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2025년도에도 청년부가 성장하여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할지 애정 어린 관심과 기대,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 Q2. 초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 남준엽 - 창립기념주일

창립기념주마다 본당에서 사진 찍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마다 땀  
 했던 교인들까지 다같이 모여 앉아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 참 뜻 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는 모습들을 보며, 흐른 시간 속에 깃들  
 어 있는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 의미 있습니다.



### 손혜윤 - 성가경연대회

청년부가 처음으로 성가경연대회에서 우승했을 때가 생각납니  
 다. 몇 주간 청년부 예배 전 후로 모여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  
 했던 순간들이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어른들께서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고, 저  
 희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 박소영 - 안성 수양관

저에게 초동교회는, 기억이 없던 시절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이젠 너무나 많은 추억  
 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 중 저는 안성으로 어린이부 성경학교 갔  
 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 벌레도 많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  
 데... 그래도 언니 오빠 친구들과 "교회로 와요" 라는 찬양을 하며 웃고 춤추던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 박소운 - 전교인 수련회

많은 신앙적 경험을 했지만 기억에 남는 일은 안성수양관에서 진  
 행했던 수련회들이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  
 교인 수련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갔던 전교인 수련  
 회에서 가족끼리 모여 함께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  
 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Q3. 현재의 초동인으로서 초동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김요한 - 하나님의 계획하심

어린 시절 수련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의 자녀를 지금의 제가 가르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르며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달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초동교회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은지 - 더욱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다리며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집사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척 신기합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 신앙의, 믿음의 인연이 이어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신희 차장 -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려는 책임감

현재의 초동인으로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30년이 넘도록 함께 초동교회를 다니던 또래들이 이제 하나 둘씩 부모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초동교회를 출석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이를 보며 초동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함께 자라며, 함께 신앙을 배우고 익힌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도 이 소중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 황태순 부장 -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초동 청년부

지금 초동교회 청년부에는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한 그룹은, 어려서부터 초동에서 자라 지금까지 청년부로 활동하는 청년들과, 또 다른 그룹은 타지에서 학사생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초동을 찾은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분열되지 않고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보완해주어 초동 청년부로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초동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청년부를 위해 교우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기도로 항상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초동교회와 나



곽화영 집사

저는 20대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한신희 집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초동교회를 알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초동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신희 집사님이 뱃속에서부터 초동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고 유아기, 청년 시절을 모두 초동교회에서 보냈다고 해서 결혼 전에는 초동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처음 초동교회를 봤을 때의 느낌이 생각이 납니다. 예배당을 들어섰을 때 십자가가 새겨진 스테인드글라스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안아주는 듯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또 손성호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손성호 담임목사님과 함께 결혼 수업을 받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초동교회와 담임목사님의 사랑과 신뢰와 함께 초동교회에서 뜻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2019년 5월 18일 결혼식도 초동교회에서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동교회와 함께 하면서 초동교회가 나의 교회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신혼집에 찾아와서 심방도 해주시고 성경 책도 선물해 주시고 문패도 걸어주시고 감사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 겨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회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결혼 후 초동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어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새 생명이 찾아왔고 2021년 예은이가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영상으로 초동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점차 풀리면서 2022년 7월 3일 한신희 집사님과 예은이와 함께 첫 유아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신희 집사님과 예은이와 셋이 함께 첫 예배를 드리던 그날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해하던 우리 예은이도 점점 유아부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또 한신희 집사님이 뱃속부터 다니고 자라온 초동교회에서 우리 예은이도 초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 뜻깊고 감사했습니다. 초동교회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동교회 안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은 것만큼 한신희 집사님과 저도 초동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며 초동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초동의 교인이 되어야겠다고 또 다짐해봅니다.



# 나와 초동교회 이야기



김태현 집사

**나의 유년기 질풍노도의시기,, 사춘기를 초동교회에서 주님과 함께하다.**

초등학교 3학년(그 당시엔 국민학교라 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피아노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어린이부 성가대에 가게 되면서 초동교회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노래를 곧잘 했고 또 좋아했던 나는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것이 행복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내 목소리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신앙이 뭔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다. 단지 찬양하며 즐기는 것이 좋았고 내 목소리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이며 점점 나의 일상이 되어있었다.

초동교회는 내 삶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은 하나님 곁에 계신 아빠, 할머니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이신 엄마, 강귀순 권사님! 모두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 작은 믿음이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참 큰 은혜였다. 물론 어릴 적 나는 믿음 보다는 교회 친구들이 좋았고, 교회 오빠가 좋았고, 찬양의 즐거움에 더 마음을 뺏기곤 했지만, 그것이 어찌면 나의 신앙 여정의 중요한 초석으로 차곡차곡 쌓여간 것은 아닌지..

나는 초동교회 어린이부, 중고등부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익히고 그 안에서 깊은 공동체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문학의 밤, 성극, 성경암송대회, 성가 경연 대회 등, 다양한 교회 활동은 나를 흥분시키고 설레게 했다. 성인이 되어 CBS 성우로 뽑히면서 전속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것 또한 특별한 경험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다. 언젠가 성경 전권을 녹음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내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축복인지 가슴 깊이 느꼈다. 그러나 인생은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방황하며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이 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날 기다려주셨고, 다시 그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손 내밀어주셨다. 쉽 없이 달려온 32년의 성우 생활동안 넘치도록 많은 일거리를 주셨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제는 강하게 믿는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성경봉독과 교회 행사 진행을 맡으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 주일 전날부터 주님께 찬양할 생각에 설렌다. 그 작은 순간들이 나에게는 큰 기쁨으로 돌아오고 찬양을 통해 주님과와의 소통을 깊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초동교회에서 처음 만난 주님, 그리고 오늘날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그 사랑에 나는 매일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것이다. 주님의 품 안에서 노래하고 기뻐할 그날까지... 나의 인생의 오춘기를 초동교회와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평안하게 보내고 있다.



문학의 밤(성극)



성가경연대회(가족창)



성경암송대회

#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 믿음의 유산



김옥비 청년

안녕하세요! 벌써 초동학사에서 생활이 3년차에 접어든 김옥비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배려 안에서 감사한 학사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대학교에서 교직이수에 합격해 현재 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초동 가족 분들의 소중한 응원과 배려 덕분입니다. 서울에서 거처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잘 압니다.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학사생들을 보듬어 주시는 초동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풀밭지의 주제가 ‘초동 79년, 믿음의 위대한 유산’인 만큼 서울 한복판에서 굳게 버티고 선 이 초동교회가 저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대학 합격 후 상경한 서울은 저에게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 곁을 떠나 거창에서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던 저는, 신앙을 지키기에 참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재단의 학교라 매주 예배를 드렸고, 대부분의 선생님과 친구들도 같은 신앙을 가졌기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더라도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삶은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떠나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지탱해 줄 신앙 공동체가 없다는 것이 너무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교회가 곧 집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 자체가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해주었지만, 서울에서의 홀로서기는 혼자라는 것 이상의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살아 나가면서, 나 스스로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새로운 공동체에 스며들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초동교회 학사를 알게 되었고, 좋은 기회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거처를 제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는데, 초동교회는 저에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래들과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고, 교회의 어른들께 믿음을 배우면서 신앙을 새롭게 다져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내가 아이들이 배울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게 되었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목사님과 성경을 공부하며 '내 스스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또한, 학사에 살면서 같은 청년들과 한 집에 모여 생활하며,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순간이 진정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청년들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지지하고 나누는 교류이자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사의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서 각자의 가족과 떨어져 홀로서기 중이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과 같은 든든한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느낍니다. 초동교회는 저와 학사생들에게 믿음의 터전이자 쉼이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동교회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리며, 많은 교우 여러분께서 저희 초동학사 청년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늘 감동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저희 학사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김벼리 청년은 영아유치부에서, 문신희 청년과 정다희 청년은 청소년부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이 봉사 활동은 저희에게 그 자체로도 큰 배움이자 은혜입니다. 주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믿음을 나누며 가르치는 시간이 참 귀합니다.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며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어르신들께서도 항상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신앙적인 조언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는 어르신들의 사랑과 배려에 저희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초동교회의 이런 따뜻한 사랑 덕분에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초동교회에서 보내온 시간은 저에게 큰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 손자, 손녀까지 3대 또는 4대에 걸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탄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초동교회가 79년 동안 굳건히 서울의 중심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각 가정의 강건한 믿음 덕분이겠지요.

새로운 공부와 새로운 일로 서울에 올라온 청년들에게 서울은 꿈과 희망의 공간이자 외로움과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눈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만 있고, 뒤를 돌면 나를 지탱해 줄 공동체 하나 없이 쓸쓸한 도시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렇기에 초동교회가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초동교회만의 탄탄한 믿음의 기반이 외롭고 각박한 도시 속에서 힘든 이들을 계속해서 보듬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초동교회가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이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10년, 50년, 100년 후에도 초동교회가 믿음의 실천을 멈추지 않고, 저와 같은 청년들, 그 후의 자녀들까지 본받고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동 문화선교 이야기>

## 성극 선언



김동현 집사

2023년 성탄절에 ‘위로’ 로 첫 무대를 올린 초동교회의 성극이 두 번째 공연 ‘마리아, 마르다’ 를 무대에 올리면서 두 번째 공연을 성공적으로 올렸다. 교회 안에서 성극에 대한 많은 의견과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알고 있다. 성극을 교회에 제안한 것도, 공연을 연출한 것도 나이기에, 가급적 내 생각은 교회에 풀어놓지 않으려 했다. 성극 공연을 통해 내가 주목받을 욕심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성극에 대해서 중심은 교회이고,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기에, 교회 내에서 오고가는 이야기에 영향 받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성극관련 글을 요청 받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만 교회와 교인들 앞에 풀어 놓기로 했다. 그 한 가지를 나는 ‘성극 선언’ 이라 제목 짓기로 했다. 내가 성극에 대해서 더 크게는 ‘초동교회 문화선교’에 대해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조금 오래되었다.

20대 후반이던 시절, 청소년부 교사를 하던 시절 지금은 없어진 ‘문학의 밤’을 통해 매년 작품들을 올리면서 그 가능성을 보아왔다. 기억 할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NOA IN SEOUL’, ‘베드로의 고백’ 과 같은 작품들을 올렸었다. 그 작품을 함께한 청소년들의 이름도 분명히 기억 한다. 나예원, 강주현, 김득겸, 전재환, 조성경 등 지금은 청년으로, 집사로 성장한, 그 당시의 청소년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은 지금의 성극이 있게 한 원동력이자 시발점이 되어주었다.

교사를 내려놓으면서 청소년부에서는 성극의 명맥이 끊어졌고, 개인적으로 그것은 지금도 아쉬운 일로 생각하는 일이 되었다. 오랜시간 다시 공연을 올리게 될 날을 기다렸던 나는 성극의 명맥이 본당공연을 통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박정근 권사님의 작품 '목동의 노래'가 본당에 올려졌고, 그 작품에 음향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나는 내가 교회를 향해 꾸어온 꿈을 다시 이어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연의 명맥은 이어지지 않았고, 그 후 10여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교회에 성극은 올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2023년에 교회에 성극을 제안하게 되었고, 교회의 허락으로 2023년 성탄주일에 성극 '위로'를 무대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초동교회 성극에 주목한 것은 그것을 통한 '문화선교의 가능성'에 있었다. 초동교회는 도심교회라는 지리적 특성에 걸맞게 수많은 달란트를 가진 이들이 등록교인들로 있는 교회다. 성가대의 명성과 그 실력은 따로 언급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권위를 갖고 있고, 다방면에서 명성을 가진 분들이 많은 교회다. 그런 교회를 유아세례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아온 나는 한 가지 갈증이 있었고 의문이 있었다. '왜 이런 달란트로 선교하지 않는가?'였다. 다방면에서 명성을 가진 분들이 많은 교회이지만, 그 분들이 가진 달란트가 교회를 통해 쓰여 지는 일은 교회행사에서 간간히 보여 지는 수준이었다. 초동교회는 거기서 머물 교회가 아니라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20대시절 청소년부에서 '문학의 밤'을 통해 공연을 올릴 때도 매년 두각을 나타내는 인원들이 매년 있어왔다. 그것은 초동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고 분명한 선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2023년 '위로'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성극팀에 문신희 청년, 이소영 집사님 같이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신 분들이 있었고, 김의환 장로님, 운명자 권사님, 엄경숙 권사님 같은 분들의 내공 깊은 연기도 빛이 났다.

올해 '마르다, 마리아'공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조연으로 활약하셨던 지주현 집사님이 주연으로 손색없는 연기를 보여주셨고, 청소년부 임재현 청소년, 어린이부 주용재 어린이도 앞으로의 성극을 기대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 '문화선교'는 초동교회의 선택이 아닌 필수요, 단순히 교회와 성도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감당할 사명을 위해 주시는 선물인 것이다. 두 번의 성극을 올리면서 나의 이 생각은 더 강한 믿음으로 단단해졌고, 그럴수록 나는 나보다는 연기하는 성도들이 성도들보다는 교회가 교회보

다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공연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공연을 만들기 위해 늘 기도하고 늘 고민하고 늘 꿈을 꾸다.

그래서 '성극 선언'이다. 성도들과 교회 앞에 '초동교회의 성극'을 선언하며, '초동교회의 문화 선교'를 성극을 통해 미력하나마 풀어갈것을 감히 선언하고자 한다. 교회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나의 건강이 가능하게 하는 한, 이 성극의 명맥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 매년 공연을 올릴 것이고, 가능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열리 성극팀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교회 창립 80주년'이기도 한 2025년에 올려질 성극을 두고 기도하는 12월의 어느 밤에 두서 없는 글을 쓰며 끝으로 이 글을 읽게 되실 모든 이들에게 짧은 기도를 요청드리고자 한다.

'초동교회의 문화선교를 위해'

'초동교회가 다음세대에 물려줄 문화의 유산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 봉사하는 교회



임하늘 목사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며,  
가장 필요한 일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Johnnes Eckhart)

- 기 - 드온섬김용사운동은 초동교회를 기점으로
  - 드 - 넓은 종로 3가, 대한민국, 세계로 향하는 대외 봉사팀입니다.
  - 온 - 인류에 빛으로 오셔서
  - 섬 - 김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 김 - 이 모락모락 나듯, 주님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 용 - 감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실천한
  - 사 - 사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 운 - 전대의 주인이신 주님, 지도해주시는 담임목사님과 당회원들,
  - 동 - 행하며 후원, 기도해주시는 초동의 교우님들과 함께하기에 늘 행복합니다.
- ‘기드온섬김용사운동’ 구행시

**신앙을 삶으로! 삶을 신앙으로! 희망, 섬김, 나눔의 현장에 함께합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기드온섬김용사운동의 모토! 주님의 선한 인도가 일상에서 풍성하게 발견되길 기도하는 마음이 아닐까 늘 생각해 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초동교회 기드온섬김용사운동의 향해는 올해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자”

담임목사님께서 헌신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한 해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무너지기도 했고, 허무한 것들을 좇는 순간도 있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우리의 고집을 더 내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어둠을 광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불어 주님과 동행이 가장 큰 보람임을 잊지 않도록 늘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교회 담장 너머 이웃을, 세상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지점, 우리는 **케밥 봉사**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출발 전, 교회 승합차 안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드온섬김용사운동 대원들이 통과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거룩히 여기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복잡한 골목이었습니다. 먼저 디아코니아(봉사)의 필요성과 난민, 노숙인 관련 현장의 소리를 접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맛을 내는 케밥으로 식사를 하고, 그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난민들이 쉼과 위로를 얻는 쉼터를 정리하였습니다. 살림 9단, 봉사 9단의 실력이 발휘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빨리..그것도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칭찬과 격려 가운데 우리는 케밥을 만드는 과정 중 가장 핵심인 고온의 열기 속에 빵 굽는 작업을 하여, 그날 나누어질 분량을 기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구루마를 끌고 늦은 밤, 수원역에 나가 나눔 봉사까지 하여야 했지만, 시간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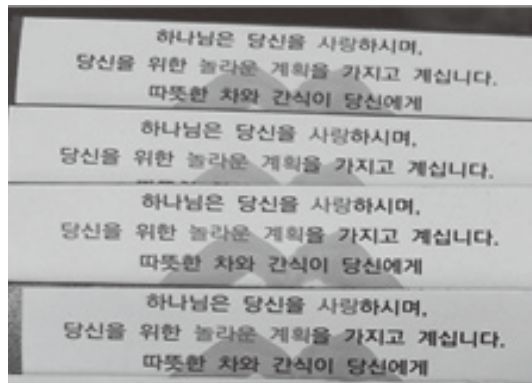
### 3부 <특집> 초동 79년, 믿음의 위대한 유산



어려움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두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 “이주민을 절대 학대하지 말라는 가르침”

짙어가는 가을, 대한적십자사로 찾아갔습니다. 대원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밝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춤을 추는 듯 보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 행했던 봉사였기에, 마치 고향에 온 듯한 평온함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종로 이웃들에게 작디작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스며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었겠지요. 대원 이외에 교우들도 함께 참여하여 연합의 축복을 경험한 감사와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재료를 고르기 위해 온 대원들이 함께 경동시장을 거니는 것으로 출발하는 김치 나눔, 환대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차가운 마음에 미려하나마 온기를 전하여 준 청소년쉼터 방문.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드온섬김용사운동을 다양한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르신 그 자리에 함께 있어 달라는 주님의 거룩한 초대였습니다. 기드온섬김용사운동대원들은 늘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세월. “우리 대원 막내가 이미 환갑을 지나가고 있다고.” 때로는 종잡을 수 없는 연약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길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하시며 부축하신다는 진리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달래시고, 언제나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봉사의 길을 걸을수록, 더욱 명료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늘 주님께서서는 우리 앞에서 계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며, 따스한 성령의 향기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언 손과 마음을 녹여달라고,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초동교회 교우 모두가 듣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읽을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도록 그곳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빛을 잃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을 우리를 발견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신 주님을 향한 작은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실것 입니다. 주님 앞에 또렷히 고백합니다.

**초동교회는 ‘봉사하는 교회’ 입니다.**

# 초동교회 창립 79주년을 맞이하어

지난 10월 6일 주일에는 초동교회 창립 79주년 기념 주일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에는 제53회 성가 경연 대회로 79주년 잔치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잘 마쳤습니다. 손성호 목사님을 비롯한 임하늘 목사님, 박학송 목사님, 박지은 목사님, 문정영 전도사님 등 교역자분들과 당회 서기이신 나호천 장로님을 비롯한 시무장로님들과 제직회원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은혜 가운데 교회 창립 79주년 기념예배를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 믿음의 한 가족으로’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라는 말씀의 제목같이 내년 교회 창립 80주년을 앞두고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자리 서울 한 복판 종로3가에 있게 된 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으로 서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일상을 회복한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초동역사를 정리 할 시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렁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 세상은 무서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 금지로 한번도 겪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초동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교인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이겨내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상을 회복한 지금 우리는 변화와 혁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지혜를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4년간의 우리 교회 역사를 이어주기 위하여 수고해주신 최동익 장로님, 임광택 장로님, 김영진 장로님, 임하늘 목사님, 박학송 목사님, 허인엽 사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역사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심성섭 권사님, 조인철 집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역사위원회 위원장 전흥빈 권사  
부위원장 심성섭 권사  
자료기록부장 조인철 집사

# 초동교회 약사(略史)

<2021. 1 ~ 2024. 10>

교회역사위원회

## 2021. 01

- 2021년 초동교회 표어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 (여호수아 1:9, 마태복음16:17-19)
- 2021년도 초동교회 제직 임명

### 1. 제직회

<b>시무권사</b> 남: 22명 / 여: 95명	<b>명예권사</b> 남: 48명 / 여: 99명	<b>서리집사</b> 남: 103명 / 여: 101명
--------------------------------	--------------------------------	----------------------------------

### 2. 각 위원회 위원장 / 각 부 부장·차장

<b>기획운영위원회</b> 윤동원 장로(위원장) 조현석(부장) 이선옥(차장)	<b>교육위원회</b> 정용덕 장로(위원장) 최병락(인재양성부장) 정유진(차장)	<b>신도위원회</b> 나호천 장로(위원장) 서경주(성서부장) 한윤석(차장) 조윤희(새가족안내부장) 강수연(차장) 강현정(새가족양육부장) 김정은(차장)	<b>구제경조위원회</b> 이희종 장로(위원장) 김선민(구제부장) 박혜련(차장) 황혜련(경조부장) 김지연(차장)
<b>예배예전위원회</b> 정병우 장로(위원장) 김숙현(예배예전부장) 김선주(차장) 임성희(성가부장) 권우용(차장) 이경로(문화부장) 김동현(차장) 조인철(방송부장)	<b>봉사위원회</b> 박영주 장로(위원장) 윤명임(봉사사역부장) 김성열(차장) 유정열(식당운영부장)	<b>선교위원회</b> 정용덕 장로(위원장) 전흥빈(선교사역부장) 김흥업(지역사회부장) 김인순(차장)	<b>재산관리위원회</b> 박영주 장로(위원장) 남승우(부장) 김성진(차장)
	<b>교회역사위원회</b> 임광택 장로(위원장)	<b>수양관관리위원회</b> 주인기 장로(위원장) 이광호(부장) 이신행(차장)	<b>재정위원회</b> 이희종 장로(위원장) 장창호(재정부장) 지주현(차장)

2021.01

3. 구역장 / 권찰

교구	교구장	지구	지구장	구역	구역장   권찰
1교구	이승호 목사	교회남1지구	나호천 장로	관악·동작구	이소희   김인숙
				안양·군포구	신경수   강서형
		교회남2지구	정병우 장로	강남·서초구	김선민   홍혜경
				분당1구	김미옥   이선옥
		교회남3지구	최동익 장로	분당2구	김숙현   김재은
				용인1구	이희복   박종욱
2교구	김영삼 목사	일산지구	김의환 장로	용인2구	최동익   김점혜
				일산구	황명희   백성애
		교회서1지구	이희종 장로	삼송구	이경로   조항남
				마포·서대문구	오혜진   강현정
		교회서2지구	박영주 장로	은평구	장희진   이경희
				강서·양천·구로구	김기련   이금희
3교구	문정영 전도사	교회1지구	정용덕 장로	인천구	김기연   조성희
				성북·종로구	이순안   김정민
		교회2지구	윤동원 장로	중구	김수자   이명심
				동대문·종랑구	이은숙   박육규
		교회동구	임광택 장로	광진구	윤명임   엄경숙
				강동구	박혜련   오은미
교회북지구	오명희 장로	송파구	심숙희   조윤희		
		노원·도봉·의정부구	김성혜   강수연		
		돈의동구역	장창호		

4. 성가대

시온성가대 (1부)	대장: 주대명 지휘: 권우용 피아노: 홍성미 오르간: 정춘	소프라노 : 김기희, 김영숙, 김인숙, 박소영, 박종숙, 윤혜진, 조성희 알토 : 김민주, 이선옥 테너 : 김태수, 장창호, 전병운, 주민수 베이스 : 김태환, 임수봉, 정상기, 조인철, 조창연, 주대명, 최선동, 최은성, 한정호
호산나성가대 (2부)	대장: 임성희 지휘: 손재연 피아노: 최미진 오르간: 정춘	소프라노 : 강서형, 곽화영, 김은혜, 김태현, 손효정, 이금희, 이수진, 임성희, 정여진, 최정빈, 황신자 알토 : 김선민, 김정민, 김지현, 유수민, 윤명자, 이민혜, 이승연, 이주은, 한연옥, 홍복림, 홍복희 테너 : 권세용, 김일중, 심성섭, 우문환, 이광식, 전병운, 한신희, 황태순, 황태영 베이스 : 김경준, 김의환, 박정근, 양원석, 이세중, 이수진, 이제원, 이희철, 한동효, 황성길
할렐루야성가대 (오후)	대장: 임광택 지휘: 김순희 피아노: 전선형 오르간: 정춘	소프라노 : 김기연, 김미옥, 김성혜, 김수자, 노계옥, 박소연, 박향숙, 신이섭, 엄경숙, 오혜진, 이순안, 최영희, 홍선애 알토 : 김기련, 김명숙, 김학숙, 남명희, 오명희, 이소희, 이은숙, 이현자, 조항남, 최영자, 한연희 테너 : 나호천, 임광택, 정용덕 베이스 : 김경행, 김진만, 박호준, 이시중, 최병락

## 2021.01

### 5. 교회학교

부서		담당 사역자	부장/차장	교사
영아/유치부		오자연 총무	김지현(부장) 성현준(차장)	간혜원, 강주은, 박기덕, 배누리
어린이부	유년부	박태현 총무	이영애(부장) 김민성(차장)	간규원, 김유진, 배윤정, 장인석, 전재환, 유다은
	초등부	윤영현 전도사		
청소년부		박형종 전도사	김영조(부장) 임성환(차장)	김동현, 김요섭
청년부		이승호 목사	서의경(부장)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24일부터 주일(1부: 8시, 2부: 11시)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한다. 본당 참석은 54명(좌석수의 10%)까지 허용하다.

## 2021.02

- 손성호 담임목사가 WCRC(세계개혁교회 커뮤니티), 동북아시아에큐메니칼 협의회의 기장교단 총대로 선임되다.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본당 참석을 110명(좌석수의 20%)까지 허용하다.
- 예배영상의 화질개선을 위해 본당 방송영상시설(카메라, 스위처, 자막기 등) 교체공사를 완료하다.

## 2021.03

- 초동교회가 종로구청으로부터 “에너지절감 활동에 대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받다.
- 교회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특별헌금으로 77,900,000원(3월 24일까지)을 봉헌하다.
- 풀발 제159호(2021. 봄)를 발행하다.
-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3월 29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초동교회tv'를 통해 영상으로 드리다.
- 교회수첩 수정본 : 기존 교회수첩(2020년판)에 수정된 사항을 추가할수 있도록 '부록' 형식으로 제작하여 배부하다.

## 2021.04

- 초동교회가 서울시에서 '방역수칙 준수 모범 종교시설'로 추천되어, 4월 4일(주일) 서울시청 관계자 및 공중파 방송 및 언론사 기자들이 방문하여 인터뷰 및 취재를 진행한다. 이번 추천은 개신교에서는 '초동교회', 천주교에서는 '명동성당'이 선정되다.
- 부활절을 맞아 절기헌금 26,605,000원을 봉헌하다.
- 제120회 서울노회 정기회 : 20일 오후2시, 공덕교회당에서 진행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총대 선출 : 손성호 담임목사, 나호천 장로  
-손성호 담임목사 노회 임원(회록서기) 선임.

## 2021.05

- 유튜브 초동교회tv 채널에 프로그램이 신설되다.  
<신앙강화 프로젝트> (1) 기독교 고전읽기 : E.M.바운즈의 '기도의 능력'  
(2) 오디오 시리즈 : 세기의 명설교

---

2021.06

- 손성호 초동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금은경 목사가 13일 오후 2:00에 ‘아름다운 상원교회’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의 담임목사로 추대되어 취임예배를 드리다.
- 하절기 대비 교회내 전층 에어컨 세척 작업 및 건물 외벽/ 테라스 방수 도색 공사를 18일에 완공하다.
- ‘봄비 아트센터’(전덕기 권사, 윤동원 장로)의 개관 예배<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소재, 동원호실버센터 옆>를 6월 20일(주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

---

2021.07

- 유튜브 초동교회tv 채널에 프로그램을 신설하다.  
- 코로나 펜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묵상
- 서울노회 제120-1차 임시노회를 7월 1일(목) 오후 3:30에 본 교회당에서 진행한다.
- 교회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현대엘리베이터 의뢰)를 6월 30일에 완공 후, 7월 2일 준공 검사 후 사용하다. \*엘리베이터 교체 특별헌금(88,300,000원)
-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 18일(주일)부터 비대면 영상예배로 드리다.
- 비대면 예배기간동안 매일 저녁마다 경건과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온라인으로 담임목사와 함께하는 ‘거룩한 저녁묵상’을 진행한다.
- 2021년 교회학교 여름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어린이부 : 7월 17일(토) ~ 18일(주일)  
- 청소년부 : 8월 7일(토) ~ 8일(주일) - (주제 : ‘믿음 그리고 실천’)  
- 청년부 : 8월 21일(토) ~ 22일(주일)

---

2021.09

- 유튜브 초동교회tv 채널에 프로그램을 신설하다.  
- 성경인물탐구
- 9일 전철순 원로장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안성공원묘원에서 교회장으로 안장예배를 드리다.  
설교 - 손성호 목사 “선한 일을 위하여” (에베소서 2 : 4-10)  
찬송 - 301장, 494장
- <故 전철순 장로 유가족>  
부인: 김영채 권사  
아들: 전홍준 / 자부: 고은아  
딸: 전경은 / 사위: 안경섭, 신금철  
손: 전서현, 전서진, 안다연, 안중권, 신혜리
-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6회 총회 : 28일(화) 오후1시 - 29일(수) 오후 5시 30분  
청주지역 4개 교회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한다.  
- 서울노회 총대 : 손성호 목사, 나호천 장로 참석

- 창립76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모든 교우들에게 [담임목사 목회서신]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제공한 [책갈피]를 배부하다. (2021. 10. 3)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물이 결실을 내고 창조의 섭리와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계절 위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3일, 교회 창립 76주년 기념주일을 맞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꿈결 같습니다.

처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불어 닥치면서, 모두 어쩔 줄 몰라 낙심했습니다. 더하여 교회가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라도 되는 듯,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오해받으면서, 암흑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텅 빈 교회당에서 예배실황을 녹화하며,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솔리스트, 목회자들과 장로님들끼리 모여 예배당을 지키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꿈결처럼 지나가고, 다시 성도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한된 인원이거나, 대면으로 함께 하고, 또 비대면 영상예배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심방도 적잖이 하였고, 영상시대에 발맞추어 '거룩한 저녁묵상', '기독교 고전읽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튜브 초동교회TV'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말씀과 목소리로 교우들을 찾아가며 더 가까이, 그리고 깊이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있다는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일상성'과 '관계성'을 잃어가며 많은 교우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신음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전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과 섭섭한 마음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이 때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끝내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새 역사의 서막'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3년 차를 앞에 두고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그것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속엔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종로3가 뒷골목으로 교회가 옮겨 선 햇수도, 내년이면 '희년(50년)'이 됩니다. 다시 할 일이 보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할 '주님의 선교'가 보입니다. 오히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선 '초동교회'여서 더 잘 해낼 것들도 보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여러분들의 교회사랑과 주님사랑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들이 여전히 활화산처럼 용솟음치고 있기에, 우리의 앞날은 밝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3일, 교회창립 76주년 기념주일에  
초동교회 담임목사 손성호 올림

-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제98회 정기(인선)총회가 14일(목) 오후 2시, 공덕교회당에서 진행되어 황혜련 집사가 회장으로 취임하다.
- 대입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Zoom) 중보기도회를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다.  
수험생 : 김경아, 김요한, 손혜윤, 안혜린, 오유진, 정세아, 전의언, 최소은, 김현성
- 추수감사주일헌금으로 28,982,400원을 봉헌하다.

2021. 11

- 코로나 상황에 따른 원활한 교회 출입관리를 위해 ‘070안심콜’을 도입하다.  
(교회 출입시 070-8025-1917로 체크인)
- 제160호 풀밭 원고를 모집하다.  
‘다시 일상으로, 그리고 신앙으로’란 주제로 12월 19일(주일)까지 접수

2021. 12

-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인해 25일(토) 6시 성탄새벽 촛불기도회는 대림절 묵상 영상으로 / 11시 성탄예배는 예배실황을 비대면 영상예배로 드린다.
- 성탄절기 특별헌금 29,405,000원을 봉헌하다.

2022. 01

- 2022년 초동교회 표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 슬픔에서 기쁨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시30:11-12)
- 2022년도 초동교회 제직 임명

1. 제직회

<b>시무권사</b>	<b>명예권사</b>	<b>서리집사</b>
남: 5명 / 여: 35명	남: 49명 / 여: 118명	남: 141명 / 여: 143명

2. 각 위원회 위원장 / 각 부 부장·차장

<b>기획운영위원회</b>	<b>교육위원회</b>	<b>신도위원회</b>	<b>구제경조위원회</b>
윤동원 장로(위원장) 주준언(부장) 김선주(차장)	정용덕 장로(위원장) 각 교회학교 부장/차장 최병락(인재양성부장) 정유진(차장)	나호천 장로(위원장) 서경주(성서부장) 한윤석(차장) 조윤희(새가족안내부장) 강수연(차장) 강현정(새가족양육부장) 김정은(차장)	정용덕 장로(위원장) 김선민(구제부장) 박혜련(차장) 황혜련(경조부장) 김지연(차장)
<b>예배예전위원회</b>	<b>봉사위원회</b>	<b>선교위원회</b>	<b>재산관리위원회</b>
정병우 장로(위원장) 김선주(예배예전부장) 송희경(차장) 임성희(성가부장) 권우용(차장) 이경로(문화부장) 김동현(차장) 김범수(방송부장) 조인철(차장)	박영주 장로(위원장) 윤명임(봉사사역부장) 김성열(차장) 유정열(식당운영부장)	정용덕 장로(위원장) 전흥빈(선교사역부장) 김흥업(지역사회부장) 김인순(차장)	이희종 장로(위원장) 남승우(부장) 김성진(차장)
	<b>교회역사위원회</b>	<b>수양관관리위원회</b>	<b>재정위원회</b>
	임광택 장로(위원장) 오은미(부장)	주인기 장로(위원장) 이남선(부장) 이신행(차장)	나호천 장로(위원장) 장창호(재정부장) 지주현(차장)



3. 구역장 / 권찰

교구	교구장	지구	지구장	구역	구역장   권찰
1교구	이승호 목사	교회남1지구	나호천 장로	관악·동작구	이소희   김인숙
				안양·군포구	신경수   강서형
		교회남2지구	정병우 장로	강남·서초구	김선민   홍혜경
				분당1구	김미옥   이선옥
				분당2구	김숙현   김재은
		교회남3지구	최동익 장로	용인1구	이희복   박종욱
용인2구	최동익   김점혜				
2교구		일산지구	김의환 장로	일산구	황명희   백성애
				삼송구	이경로   조항남
		교회서1지구	이희중 장로	마포·서대문구	오혜진   강현정
				은평구	장희진   이경희
		교회서2지구	박영주 장로	강서·양천·구로구	김기련   이금희
				인천구	김기연   조성희
3교구	문정영 전도사	교회1지구	정용덕 장로	성북·종로구	이순안   김정민
				종구	김수자   이명심
		교회2지구	윤동원 장로	동대문·중랑구	이은숙   박육규
				광진구	윤명임   엄경숙
		교회동구	임광택 장로	강동구	박혜련   오은미
				송파구	심숙희   조윤희
교회북지구	오명희 장로	노원·도봉·의정부구	김성혜   강수연		
		돈의동구역	장창호		

4. 성가대

시온성가대 (1부)	대장: 주대명 지휘: 권우용 피아노: 홍성미 오르간: 정춘	소프라노 : 김기희, 김영숙, 김인숙, 박소영, 박종숙, 윤해진, 조성희 알토 : 김민주, 이선옥 테너 : 김태수, 장창호, 최원진 베이스 : 임수봉, 정상기, 조인철, 주대명, 최선동, 최은성, 한정호
호산나성가대 (2부)	대장: 임성희 지휘: 손재연 피아노: 최미진 오르간: 정춘	소프라노 : 강서형, 곽화영, 김은혜, 김태현, 손효정, 이금희, 이수진, 임성희 정여진 최정빈, 황신자 알토 : 김선민, 김정민, 김지현, 유수민, 윤명자, 이민혜, 이승연, 이주은, 한연옥, 홍복림, 홍복희 테너 : 권세용, 김일중, 심성섭, 우문환, 이광식, 전병운, 한신희, 황태순, 황태영 베이스 : 김경준, 김의환, 박정근, 양원석, 이세중, 이수진, 이재원, 이희철, 한동효, 황성길
할렐루야성가대 (오후)	대장: 임광택 지휘: 김순희 피아노: 전선형 오르간: 정춘	소프라노 : 김기연, 김미옥, 김성혜, 김수자, 노계옥, 박소연, 박향숙, 신이섭, 엄경숙, 오혜진, 이순안, 최영희, 홍선애 알토 : 김기련, 김명숙, 김학숙, 오명희, 이소희, 이은숙, 이현자, 조항남, 최영자, 한연희 테너 : 나호천, 임광택, 정용덕 베이스 : 김경행, 김진만, 박호준, 이시중, 최병락

2022. 01

5. 교회학교

부서		담당 사역자	부장/차장	교사
영아/유치부		오자연 총무	인선중(부장) 성현준(차장)	간혜원, 강주은, 박기덕, 배누리
어린이부	유년부	청빙 준비중	이영애(부장) 김민성(차장)	배윤정, 장인석, 유다은, 전재환
	초등부			
청소년부		박형종 전도사	인선중(부장) 임성환(차장)	간규원, 김동현, 김요섭, 정해라
청년부		이승호 목사	서의경(부장)	

• 2022년 청지기

1. 서리 집사 <284명>

男: 141명

강영훈	김범수	김정선	박민균	양원석	이재하	전성모	최선동
강재우	김법래	김정환	박성배	양홍관	이정하	전성현	최승도
강재형	김병수	김종건	박정진	오현호	이준환	전흥빈	한경민
강현석	김상영	김진우	박창순	유형기	이중석	정우동	한동효
공병억	김성수	김진철	배형진	윤성열	이창걸	정유석	한윤석
권우용	김성수	김찬수	서동현	윤해섭	이현준	정총교	현진상
권태인	김성열	김창환	서수원	이관식	이호근	정형직	홍성용
김경안	김성열	김태수	서의경	이광배	이효종	조상연	홍영철
김경태	김성진	김태완	서준경	이남선	이희철	조인철	황도원
김경태	김성태	김태형	서진	이명하	임성환	조창연	황도정
김관근	김승연	김현석	선정모	이민재	임수일	조현석	황선균
김기근	김영운	김현주	설훈	이범식	임진규	주민수	황태순
김동현	김영조	김형래	손영채	이병갑	장도일	주상언	황태영
김두산	김영효	김홍수	손재연	이상빈	장지현	주준규	이신행
김두송	김인규	남승우	송진섭	이상재	장창호	주준언	허인업
김민석	김인석	문덕규	신원주	이선종	전권순	채영근	
김민성	김일중	문지웅	안병선	이성식	전동훈	최범수	
김민혁	김재윤	박동기	안준우	이수진	전병근	최병락	

女: 143명

강수경	김기희	김선주	김영숙	김정현	김태현	재박계	경박현
강수연	김난영	김성죽	김은혜	김종숙	김현덕	현박소	은박현
강희경	김남지	김소희	김은희	김지선	김혜미	영박소	주박혜
고병화	김란희	김수연	김인순	김지연	김혜향	현박윤	성백경
고영민	김미향	김수연	김재은	김지현	김혜희	정박인	진서경
고필은	김민정	김수옥	김재희	김지현	김효진	혜박일	주성현
권선명	김봉희	김숙연	김정민	김지희	나아	남박진	준손효
김경주	김선민	김순희	김정은	김진숙	정류연	선박현	정송성

진송윤	오준영	이다미	이시은	임성진	정여진	조지영	허 난
진송은	오현영	이명심	이영미	임성희	정유진	조현희	홍복림
혜신소	우인희	이미경	이영애	임수경	정재연	주동화	홍성은
정신수	유수민	이미송	이정미	임혜원	정 춘	주진희	홍영애
연지연	유희정	이미원	이주은	장유숙	제현미	지주현	홍혜경
심지현	윤미라	이병남	이진숙	전경임	조명희	진은경	황신자
안미선	윤복래	이상영	이진아	전신현	조성희	천영림	황현정
양선화	윤석승	이수진	이한나	전혜은	조소량	최미진	황혜련
오영주	윤정은	이숙희	이해진	정미영	조유경	최은희	황혜진
오은미	이금희	이승주	임금란	정선훈	조윤희	한금옥	

2. 사무 권사 男: 5 / 女: 35 <40명>

3. 명예 권사 男: 33명 / 女: 92명 <125명>

4. 명예권사 추대 <46명>

男: 16명	김권태	김효섭	우문환	이시종	정정남	황성길	
	김기봉	나형준	이경로	이인배	조성열		
	김정한	서성석	이광식	임수봉	차오성		
女: 26명	강귀순	김은숙	박혜순	윤승복	이태주	최경순	한연희
	김기련	김양순	신경수	이경희	장희진	최광섭	황명희
	김덕희	김옥순	신재남	이민정	정성자	하두례	
	김수자	박인숙	유보화	이정옥	조향남	한연옥	

- 2022년 1월 1일(토) 11시 새해아침예배를 비대면 영상예배로 드리다.
- 교회학교가 '졸업 및 진급 예배'를 비대면 영상예배로 드리다.  
<졸업, 진급자 명단>
  - 영아유치부 졸업 및 어린이부 진급 : 김선우, 김현우, 배은솔, 홍채희, 유승찬, 이지환, 김라임, 김소은
  - 어린이부 졸업 및 청소년부 진급 : 김건희, 김고은, 박영주, 유범건, 임재현, 주유빈
  - 청소년부 졸업 및 청년부 진급 : 손혜윤, 오유진, 정은지
-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회주일예배를 드리고, 루디아회장 조윤희 집사가 여신도회 사업보고를 하다.
  - 전체여신도회장 : 김선주 집사
  - 한나회장 : 김기련 권사
  - 에스더회장 : 윤명임 권사
  - 루디아회장 : 조윤희 집사
  - 드보라회장 : 강수연 집사
- 풀밭지 제160호를 발간하다.

---

2022. 02

- 2부예배 후, 예배준비실에서 (재)초동교회 공원묘원 정기이사회를 진행한다.  
이사장 : 손성호 담임목사  
이사 : 주인기, 임광택, 나호천, 윤동원, 박영주, 정병우, 정용덕, 이희종 장로  
감사 : 한동효, 이남선 집사
- 교회학교 겨울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어린이부 성경학교 : 3월 5일(토)-6일(주일)  
- 주제 '하나님나라 어린이는 이렇게 예배드려요.'(온라인)
  2. 청소년부 성경학교 : 2월 19일(토)-20일(주일)  
- 주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온라인)
  3. 청년부 수련회 : 26일(토), 이천새터교회(경기도 이천)  
- 주제 '신앙인, 내일은 희망하고 오늘을 산다.'

---

2022. 03

- 여신도회 1일기도회 및 3.1절 에스더기도회 : 3월 2일(수) 오후2시 분당
- 초동학사 입사 : 김옥비(제주노회 대륜교회), 김나영(광주노회 세광교회)
- 초동교회 교육/행정 부목사로 이상준 목사가 3월 6일부로 부임하다.
- 초동교회 이승호 부목사가 3월 27일부로 사임하다.
- 초동교회 청년사역 담당 부목사로 박지은 목사가 3월 27일부로 부임하다.

---

2022. 04

- 부활절 맞이 '견신례 예식'을 거행하다.  
문답 : 4월 1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당회실  
예식 : 2부 예배 설교후  
견신례 받는 이 : 손혜윤(청년부), 정은지(청년부)
- 고난주간, 부활주일 특별 프로그램
  - 고난주간 특별 영상 새벽기도회 : 매일 오전 6시, 유튜브 초동교회TV
  - '함께 목소리로 나누는 주님의 고난' : 각 신도회, 교회학교별로 '고난의 말씀' 읽기 신앙공동체 훈련
  - 고난주간 한끼 금식 캠페인 : 대한성서공회가 주관하는 "우크라이나에 성경 보내기 운동" 모금 동참
  - 부활주일(17일) 새벽 '촛불기도회'를 실시간 영상예배로 드리다.

---

2022. 05

- 부활절을 맞아 절기헌금을 30,000,000원을 봉헌하다.(예산 30,000,000원)  
우크라이나 성경보내기 운동 모금액 737,000원을 대한성서공회로 보내다.
-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어르신(1948년생 이상)들을 위해 선물(애광원 만쥬)을 드리고, 교회학교 청년, 청소년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다.
- 8일(주일) 오후3시, 교회 본당에서 서울장로회 운영위원회를 진행한다.  
(부회장 : 정용덕 장로, 설교 : 손성호 담임목사)

## 2022. 05

- 10일(화) 정오, 예배준비실에서 초동학사 입사생 학부모들과 초동 교역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다.
- 권사 임직 및 신입 서리집사 임명대상자 오리엔테이션  
- 5월 22일, 29일 / 6월 5일, 12일 (2부 예배 후, 본당)
- 장년부 담당 부목사로 임하늘 목사가 5월 29일부로 부임하다.

## 2022. 06

- 전체 여신도회 수련회 : 2일(금) 오전 9시 출발  
장소 : 초동교회 안성수양관, 경기도 안성소재, 안성맞춤랜드  
주제 : 슬픔에서 기쁨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시편 30:11-12)  
내용 : 말씀과 기도, 즐거운 친교와 화합
- 선교나눔 : 캄보디아 교인들에게 보낼 여벌 옷 모으기 진행
- 권사 임직예식 : 6월 19일(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  
- 권사 임직자 (20명)  
(남) 김종건, 이희철, 전흥빈, 정형직, 김기근, 현진상, 남승우, 박민균, 이남선, 조창연, 한동효  
(여) 정선훈, 김정민, 이명순, 김선주, 김인순, 백경진, 황혜련, 이명심, 김선민  
- 신입 서리집사 임명자 (16명)  
(남) 김태형, 이재원, 이병호, 이정훈, 정원영, 한신희, 김요섭  
(여) 신경숙, 양선미, 최재임, 배윤정, 전이환, 김민주, 김현주, 곽화영, 주은희
- 교역자/직원 수양회 : 6월 21일(화), 경기도 파주 '마장호수'

## 2022. 07

- 2022년 제직수련회 : 7월 3일(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 (점심 : 온면, 떡제공)  
- 주제 :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시편30:11-12)  
- 강사 : 허광섭 목사 (서울노회 공로목사, 창현교회 원로목사)
- 2022년 초동교회 남신도회 야유회 : 7월 12일(화)  
- 장소 : 김영진 문학관, 서오릉
- 2022년 교회학교, 가족연합수련회를 계획하다.  
-일시 : 8월 15일(월) 오전 10시 - 오후 9시  
-주제 :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찬송으로!  
-주관 :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용덕 장로)  
-장소 : 안성수양관  
-대상 : 영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학부모·가족  
-출연 : 이정기 목사와 청년의침 찬양팀(동네교회 담임, 분당만나교회 찬양인도), 손재연, 최정빈
- 8월 15일(월) 예정되어 있었던 [2022년 교회학교, 가족연합수련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자율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보류하며, 교회학교 여름행사는 부서별로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2022. 08

-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청년부 : 8월 14일(주일)-15일(월), 용인 자연숲캠핑장, 에버랜드
  - 어린이부 : 8월 21일(주일), 본 교회당 / 예배와 놀이활동
  - 청소년부 : 8월 27일(토)-28일(주일), 본 교회당 / 공동체 활동, 풋볼 기도회 등
  - 영아유치부 : 8월 28일(주일), 본 교회당 / 탈인형을 이용한 율동, 인형극 등

2022. 09

- 9월 18일 총회가 제정한 남신도회주일예배를 드리고, 야곱회장 장창호 집사가 남신도회 사업보고를 하다.
  - 아브라함회(70세이상) 회장: 조성열 권사
  - 야곱회(60~69세)회장: 장창호 집사
  - 다윗회(46~59세)회장: 김범수 집사
  - 에베에셀회(30~45세)회장: 안병선 집사
-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7회 총회 : 20일(화)-22일(목), The K-Hotel 경주
  - 총회 주제 : 새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 서울노회 총대 : 손성호 목사, 나호천 장로

2022. 10

- 교회창립 77주년 기념예배를 성만찬예식으로 드리며, 2부 예배는 '창립기념 특별 찬양 온가족예배'로 드리다.
  - 1부, 2부 예배 : 창립기념 특별찬양 예배, 성만찬 예식
  - 1부 예배 특별찬양 : 시온성가대, 김시온 성도 외 4인(챔버)
  - 2부 예배 특별찬양 : 호산나성가대, 솔리스트 / 김수현 집사(바이올린) / 손미래 성도(오보에)
  - 2부 예배후 온면 제공 : 최웅섭, 박문희 권사 가족(최웅섭 권사 구순 감사)
  - 1, 2부 떡 제공 : 교회(창립 77주년 감사)
- 16일(주일) 오전 10시 추수감사주일 돈의동 이웃 떡나눔(지역사회부) 행사를 진행한다.
- 대입을 앞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리다.
  - 수험생 : 김예나(김성진, 김지연 집사), 오유진(오현호, 서경주 집사)  
채현욱(채영근, 박혜성 집사), 최지은(최승도, 홍영애 집사)  
김아영(김영우, 박정아 성도)
- 30일(주일) 2부예배후, 선교관 1층에서 돈의동구역 생일잔치(지역사회부)를 진행한다.
- 추수감사주일헌금으로 31,251,000원을 주님께 봉헌하다. (예산 31,000,000원)

2022. 11

- 13일(주일) 오전 10시(수능일), 2층 난곡홀에서 수험생과 가족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한다.  
수험생 : 김예나, 오유진, 채현욱, 최지은, 김아영 (총 5명)
- 23일(수) 오전 10시, 4층 식당에서 기드온 섬김용사 운동 김치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 27일(주일) 오후 1시 30분, 4층 식당에서 연합구역예배를 드리다.

- 4일(주일) 오후 4시, 인천삼일교회에서 초동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이승호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리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97번길 40)
- 이상준 부목사가 12월 11일부터 사임하다.
- 성탄 새벽 촛불기도회 : 25일(주일) 오전 6시, 본당  
성탄절 온가족예배 : 25일(주일) 오전 8시 / 11시, 본당  
성탄축하 행사 : 25일(주일) 2부 예배시, 본당  
유아세례예식, 명예권사 추대식 및 청지기 위로 : 25일(주일) 본당
- 故 이희종 장로가 18일(주일) 소천하여, 24일(토) 장례 / 초동안성묘원에 안치되다.
- 18일(주일)에는 세례 및 견신례 예식, 25일(주일)에는 유아세례 예식과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2부 예배 중에 진행된다.
  - 세례 - 강명섭, 김명옥, 김홍삼
  - 견신례 - 김요한, 조은애
  - 유아세례예식 - 김리아(김민혁, 박미향 집사 딸), 김모하(김대홍, 전이환 집사 딸), 김소망(김요섭, 김현주 집사 딸), 김탄희(김기원, 신소정 집사 딸), 김탄욱(김기원, 신소정 집사 아들), 정기쁨(정원영, 주은희 집사 딸), 한예은(한신희, 곽화영 집사 딸)
  - 명예권사 추대자 - 김경숙, 김영래, 안희숙, 오혜자, 오혜진, 윤명임, 이태옥, 장경희, 흥복희
- 성탄절기 특별헌금 31,162,000원을 봉헌하다.



2023. 01

• 2023년 초동교회 표어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

• 2023년도 초동교회 제직 임명

1. 당회

당회장 : **손성호** 목사 / 서기 : **나호천** 장로 / 시무장로 : **나호천, 윤동원, 정병우, 정용덕**

2. 제직회

의장 : **손성호** 목사 / 서기 : **정충교** 집사 / 부서기 : **김성진** 집사 / 회계 : **정유석** 집사 / 부회계 : **신원주** 집사

3. 제직

**시무권사**

남: 15명 / 여: 36명

**명예권사**

남: 44명 / 여: 114명

**서리집사**

남: 141명 / 여: 144명

4. 각 위원회 위원장 / 각 부 부장·차장

**기획운영위원회**

나호천 장로(위원장)  
김선주(부장)  
주준언(차장)

**교육위원회**

윤동원 장로(위원장)  
각 교회학교 부/차장  
한동호(인재양성부장)  
이한나(차장)

**신도위원회**

임광택 장로(위원장)  
장창호(새가족사역부장)  
이명심(차장)  
강수연(새가족안내부장)  
이명순(차장)

**구제경조위원회**

황혜련(구제경조부장)  
김선민(차장)

**예배예전위원회**

정용덕 장로(위원장)  
황명희(예배예전부장)  
조윤희(차장)  
정 춘(성가부장)  
손재연(차장)  
김흥업(문화부장)  
김태현(차장)  
김범수(방송부장)  
조인철(차장)

**봉사위원회**

정병우 장로(위원장)  
송희경(식당봉사부장)  
윤명임(차장)

**선교위원회**

정용덕 장로(위원장)  
전흥빈(선교사역부장)  
정충교(차장)  
김인순(지역사회부장)  
박소영(차장)

**재산관리위원회**

나호천 장로(위원장)  
조성열(재산관리부장)  
황태순(차장)

**교회역사위원회**

김영진 장로(위원장)  
심성섭(부장)  
김동현(차장)

**수양관관리위원회**

주인기 장로(위원장)  
이남선(부장)  
이신행(차장)

**재정위원회**

윤동원 장로(위원장)  
정유석(재정부장)  
박혜련(차장)



5. 성가대

시온성가대 (1부)	대장: 주대명 지휘: 권우용 피아노: 최슬기 오르간: 정춘	소프라노 : 김기희, 김영숙, 김인숙, 박소영, 박종숙, 오찬양, 윤해진 알토 : 김민주, 이선옥, 박은영 테너 : 김태수, 장창호, 최현우 베이스 : 정상기, 조인철, 주대명, 최선동, 최은성, 조창연, 박정환
호산나성가대 (2부)	대장: 우문환 지휘: 손재연 피아노: 최미진 오르간: 정춘	소프라노 : 강서형, 김은혜, 김태현, 이수진, 임성희, 윤석승, 정여진 최정빈, 황신자 알토 : 김선민, 김정민, 김지현, 유수민, 윤명자, 이민혜, 이승연, 이주은, 한연옥, 홍복림, 홍복희 테너 : 김일중, 심성섭, 우문환, 이광식, 이윤규, 황태순, 김민성 베이스 : 김의환, 박정근, 양원석, 이세중, 이수진, 이제원, 이희철, 한동효, 황성길
할렐루야성가대 (오후)	대장: 임광택 지휘: 정춘 피아노: 박은영	소프라노 : 김기연, 김미옥, 김성혜, 김수자, 노계옥, 박향숙, 신이섭, 엄경숙, 오혜진, 이순안, 최영희, 홍선애 알토 : 김기련, 김명숙, 김학숙, 오명희, 이소희, 이은숙, 이현자, 조향남, 한연희 테너 : 나호천, 임광택, 정용덕 베이스 : 김경행, 김진만, 이시중, 최병락

6. 구역

교구	지구	지구장	구역	구역장   권찰
1교구	교회남1지구	주대명 장로	관악·동작구	이소희 권사   김인숙 권사
			안양·군포구	신경수 권사   강서형 권사
	교회남2지구	정병우 장로	강남·서초구	김선민 권사   홍혜경 집사
			분당1구	김미옥 권사   이선옥 권사
			분당2구	김숙현 권사   김재은 집사
	교회남3지구	나호천 장로	용인1구	이희복 권사   박종옥 권사
용인2구			최동익 장로   김점혜 권사	
2교구	일산지구	김의환 장로	일산구	황명희 권사   백성애 권사
			삼송구	이경로 권사   조향남 권사
	교회서1지구	임광택 장로	마포·서대문구	오혜진 권사   강현정 권사
			은평구	장희진 권사   이경희 권사
	교회서2지구	서현석 장로	강서·양천·구로구	김기련 권사   황혜진 집사
			인천구	김기연 권사   조성희 집사
3교구	교회1지구	정용덕 장로	성북·종로구	이순안 권사   김정민 권사
			중구	김수자 권사   이명심 권사
	교회2지구	윤동원 장로	동대문·종랑구	이은숙 권사   박육규 권사
			광진구	윤명임 권사   엄경숙 권사
	교회동구	이민호 장로	강동구	박혜련 권사   오은미 집사
			송파구	심숙희 권사   조윤희 집사
	교회복지구	오명희 장로	노원·도봉·의정부구	송희경 권사   강수연 집사
		돈의동구역	장창호 집사	

2023. 01

5. 교회학교

부서	담당 사역자	부장/차장	교사
영아/유치부	오자연 총무	김지현(부장) 성현준(차장)	간혜원, 정은지, *황지민(차상위교사)
어린이부	유년부	박형종 교육전도사	이영애(부장) 배윤정(차장)
	초등부		
청소년부	박학송 목사	임성환(부장) 김진우(차장)	간규원, 김동현, 김요셉, 정혜라
청년부	박지은 목사	서의경(부장) 홍성용(차장)	

- 수요일예배 : 4일(수)부터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드리며, 저녁 7시에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다.
- 첫 주일부터 4층 식당 아가페 식사를 재개하다. (식대 2천원)
- 박영주 장로가 시무 사임하다.
- 부목사 부임 : 박학송 목사 (박은영 사모, 박아현, 성현) / 교육행정담당, 청소년사역
- 교회학교 교사대학 : 14일(토) 오전 10시 난곡홀  
강사 : 이원표 목사 (영생고 교목, 경기노회 초월교회)  
주제 : 교회교육과 신앙적 자녀 양육
- 남신도회 간친회 : 14일(토) 오후4시, 난곡홀
- 15일(주일) 풀밭지 제161호가 발행되다. (예배예전 위원회/문화부)
-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회주일로 지키고, 루디아회장 황혜진 집사가 <여신도회 사업보고>하다.  
전체여신도회장 : 김선주 권사  
한나회장 : 김기련 권사  
에스더회장 : 심숙희 권사  
루디아 회장 : 황혜진 집사  
드보라회장 : 오은미 집사
- 유튜브 초동교회TV,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 선교] 안내와 예정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송출하다.  
- 초동의 기도 : 매주 (월),(목) 오전 6시 / 초동교우들의 공동기도  
- 내 인생의 성경말씀 : 매주 (토) 오전 6시 / 교우들의 신앙고백 릴레이  
- 자녀와 함께하는 이야기 성경 : 추후 안내 / 화목한 신앙가정 세우기  
- 초동의 찬양 : 추후 안내 / 은혜로운 성가와 찬양 연주, 합주
- [성경통독반] 모임을 29일(주일)부터 매주일 오전10시에 3층 기쁨방에서 진행한다.  
(인도-박학송 목사)
- 부임 : 이지인 목사 (유아교육 협동목사로 초빙)
-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 2월 4일(토)-5일(주일) / 장소 : 여주 성서역사박물관

## 2023. 01

- 각 신도회 회장단 및 고문 장로 임명  
<남신도회 전체회장 : 황성길 권사>
  - 아브라함회(고문 황창구 장로) : 황성길 회장, 이경로 부회장
  - 아급회(고문 김천규 장로) : 한동호 회장, 남승우 부회장
  - 다윗회(고문 김영진 장로) : 김범수 회장, 김성열 부회장<여신도회 전체회장 : 김선주 권사>
  - 한나회(고문 최동익 장로) : 김기련 회장, 김수자 총무
  - 에스더회(고문 주인기 장로) : 심숙희 회장, 이은숙 부회장
  - 루디아회(고문 김익겸 장로) : 황혜진 회장, 이명심 부회장
  - 드보라회(고문 서현석 장로) : 오은미 회장, 강수연 부회장

## 2023. 02

- 4일(토)부터 5일(주일)까지 청소년부 겨울수련회를 3층 기쁨방에서 진행한다.
- 구역장, 권찰 기도회 : 8일(수) 오전 11시, 3층 자비방에서 진행한다.
- 2일(주일) 신학교육주일로 한신대학교 강성영 총장(신학과)을 초빙하여 2부예배 설교, 신학대학원 전액장학사업 참여를 위한 특별헌금을 모금하다.
- 신년제직수련회 : 19일(주일) 오후 2시, 본당
  - 예배, 비전나눔 (14:00~14:50) : 손성호 담임목사
  - 위원회, 부서별 모임 (15:00~16:10) : 김태현 집사
  - 종합토론, 발표 (16:20~17:00) : 나호천 장로\* 제직수련회 시간동안 어린이 키즈존을 3층에서 운영, 어린이 돌봄사역 진행
-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 어린이부 : 2월 26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교회 2층 어린이부실
  - 청년부 : 2월 18일(토) ~ 19일(주일), 강원도 고성 / 초도제일교회 예배봉사
-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40일 사순절 묵상집] 발간 : 손성호 담임목사 집필  
영상선교 :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매주 월-토)  
(유튜브 초동교회tv, 홈페이지)  
내 인생의 말씀 (매주 토요일) / 유튜브 초동교회 tv / 홈페이지

## 2023. 03

- 3.1절 산상기도회 : 3월 1일(수) 오전 10시 - 오후 1시, 서대문 안산자락길 (집합장소 : 독립문역 5번출구)
- 3월 16일 기드온섬김용사운동 난민 선교 (대상 : 에디오피아 난민) '에디오피아 난민'을 위한 후원물품 모집 (암하늘 목사, 이선옥 권사)
  - 모집기간 : 2월 27일(월) ~ 3월 15일(수), <3월 16일(목)에 전달>
  - 기부장소 : 1층 카페
  - 모집물품 : 쌀, 스파게티(면), 옷(성인용 외투)
- 기드온섬김용사운동 수련회 : 20일(월)-21일(화), 강원도 삼척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868,000원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전달하다.
- 1층 베다니 카페 리오픈 기도회 : 19일(주일) 오후 1시, 베다니카페
- 에벤에셀 학부모 모임 : 26일(주일) 2부 예배 후, 4층 베다니식

2023. 04

- 초동교회 2023년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
    -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 4월 3일(월) - 8일(토) 매일 오전 6시 30분  
신도회별 특송순서 ; 월(아브라함회), 화(야곱, 다윗회), 수(하나, 루디아회), 목(에스더, 드보라회), 금(성가대), 토(청년신도회, 청년부)
    - 최후의 만찬기념예배 : 4월 5일(수) 오후 7시
    - 성금요일 예배 : 4월 7일(금) 오후 7시, 십자가 행진, 참회의 기도
    -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 및 부활절 계란 포장 : 4월 8일(토) 오전 10시
    - 부활새벽 촛불기도회 : 4월 9일(부활주일) 오전 6시
    - 부활주일 온가족예배 : 4월 9일(부활주일) 오전 8시, 11시
  - 경비 김문규 주임 부임, 경비 송준범 주임 퇴임 (4월 1일)
  - 동의동 이웃 부활절 계란 나눔 : 9일(부활주일) 오전 10시, 지역사회부
  - 제31회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신도위원회) : 9일(부활주일) 오후 2시
    - 경합부문 : 조요한 성도(믿음상), 강수연 집사(소망상)
    - 친선부문 : 어린이부(희락상), 청소년부(화평상), 루디아회(운유상), 청년부(양선상), 드보라회(절제상), 에스더회(충성상)
  - 초동안성 공원묘원(안성) 설명회 : 4월 16일(주일) 2부예배 후, 본당 (보고자 : 안성묘원관리위원장 주이기 장로)
1. 현황보고  
묘지면적: 66,873평 / 대지면적: 1,630평 / 도로 및 전답 면적: 3,733평 / 허가기수: 1000기  
총 분양기수: 930기 / 현재 매장묘: 317기 / 현재 납골묘: 47기
2. 운영발전을 위한 주요 개선 사항 \*묘지 조성의 효율적인 방안 검토  
-> 석물(2-3set) 사전에 물량 확보(하관 예식전 석물 설치 완료)  
-> 석물 원가 절감을 위한 업체 탐방  
-> 묘지 주변 거대 고목 및 잡목 벌목 (매년 상황에 맞게 부분 벌목)
- 선교위원회 선교사역부 모임 : 16일(주일) 오전 10시, 1층 카페
  - 제124회 서울노회 정기노회 : 18일(화) 오전 9시 30분, 경동교회당
    - 목사총대 : 손성호, 임하늘, 박학승, 박지은 - 장로총대 : 나호천, 정용덕
  - 부활절 절기헌금으로 32,362,000원을 봉헌하다. (예산 : 31,000,000원)
  - ‘난민’들을 섬기는 [한끼 금식 캠페인] : 4월 3일(월) - 8일(토)
    - 헌금 1,558,000원을 난민선교후원금으로 기드온섬김용사운동을 통해 전달하다.
  - 기드온섬김용사운동 김치나눔 : 28일(금) 오전 10시, 4층 식당
  - 루디아여성신도회 바자회 : 30일(주일) 1층 로비 (품목 : 의류, 미숫가루, 잡화)

---

## 2023. 05

- 아브라함남신도회 봄나들이 : 5월 4일(목), 고양국제꽃박람회(오전 10시)
-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 액자를 제작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가정에 선물하다.
-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3층 키즈존을 보완, 설치하다.
- 아브라함남신도회 - 구순 맞으신 회원(최동익, 황창구, 김천규, 이동욱, 윤달영)에게 축복기도와 감사행사를 14일 2부예배 후 난곡홀에서 진행한다.
- [예루살렘 성지순례] 설명회 : 5월28일(주일) 2부 예배 후, 2층 난곡홀에서 진행한다.
  - 순례일시: 11월 6일(월)-16일(목) / 10박 11일
  - 순례국가: 이스라엘(예루살렘 외), 이집트, 요르단

---

## 2023. 06

1. 전체여신도회 수련회 : 6월 1일(목)
  - 장소: 초동교회 안성수양관
  - 주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 내용: 특강(기장 여신도의 역사-담임목사), 즐거운 친교와 화합(임하늘 목사), 평택 '성광원' 방문
2. 교회역사위원회 : 2일(주일) 2부 예배후, 지하 온유방(위원장-김영진장로, 부장-심성섭권사)
3.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정기모임과 기도 : 8일(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2층 난곡홀
4. 교회예배 형식 및 시간 변경 / 7월 5일 수요일예배부터 적용.
  - 주일예배 (1, 2부) : 성도의 교제(환영과 축복 찬양으로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 수요일예배 : 하절기(7-9월) 시간 -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 구역특송과 기도
  - 연합(새벽)기도회 : 매월 셋째 주 (토) 오전 7시, 2층 난곡홀 / 기도와 아침교제
5. 연합구역예배(상반기) : 18일(주일) 오후 2시, 본당 / 각 구역별 예배장소에서 진행한다. 교회 2층과 6층 발코니에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간이 파라솔과 의자를 비치하여 휴게공간을 마련하다.
6. 기도온섬김용사운동 오이저나눔봉사 : 14일(수) 오전 10시, 1층 카페에서 진행한다.

---

## 2023. 07

- 아급남신도회 수련회 : 7일(금) - 8일(토), 초동교회 안성수양관
- 예배예전위원회 문화사역부 모임 : 16일(주일) 오전 10시, 1층 카페
- 교회학교 각 부서 여름행사
  - 영아유치부 : 7월 15일(토)-16일(주일) / 본교회(2일간)
  - 청소년부 : 7월 28일(금)-30일(주일) / 양평 돌체파르니엔 팬션(1박), 본교회(1박)
  - 청년부 : 8월 11일(금)-13일(주일) / 경기도 남양주 용진교회당(2박3일)
  - 어린이부 : 8월 19일(토)-20일(주일) / 본교회(2일간)

2023. 08

-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정기모임(2회차) : 5일(토) 오전10시, 2층 난곡홀
- 예배예전위원회 성탄 성극 준비를 위한 모임 : 6일(주일) 오후12시 50분, 4층 베다니석
- 청년신도회 일일소풍 : 15일(화) 오전10시 30분 교회출발, 은평 한옥마을
- [신앙의 가정] 자녀교육 특강
  - 일시 및 장소 : 19일(토) 오전 11시 - 오후 12시 30분(1층 베다니 카페)
  - 대상 :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 강사 : 신은경 권사 (전 KBS 아나운서,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 담당 : 임하늘 목사, 임광택 장로(신도위원장)
  - \* 당일,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개회예배 이후 진행하다.
- 예배예전위원회 문화사역부 모임 : (30일) 오전9시 50분, 1층 카페
- [초동교회 서울의 희망 프로젝트 1] “따뜻한 밥상” 준비위원을 임명하다.
  - 준비위원 : 박학송 목사, 나호천 장로, 김은희 집사, 주준언 집사, 강수연 집사
- 27일 주일찬양예배를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예배로 드리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 참석)

2023. 09

- 3일 주일찬양예배를 장로피택을 위한 1차 특별기도회로 드리다.
- 6일(수) 수요일예배 후, 신도회 주관 장로피택을 위한 2차 특별기도회를 드리다.
- 8일(금) 오전 10시, 기드온섬김용사운동 김치나눔봉사를 4층 식당에서 진행한다.
- 10일 주일 2부예배후, 참석교인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1, 2차 투표를 거쳐, 조윤희, 김일중 집사를 피택장로로 선출하다.
- 13일(수)까지 기드온섬김용사운동에서 난민선교와 기부를 위한 물품 모집을 진행하여, 23일(토) 2층 난곡홀에서 <난민초청- 나그네와 함께하는 주님의 만찬행사>를 진행한다.
  - 대장 이선옥 권사, 담당 임하늘 목사
-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정기모임과 기도(3회차) : 16일(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2층 난곡홀
- 17일(주일) 오후 5시, 당회원-원로/은퇴장로 친교모임을 용인 수지에서 진행한다.
- 모여진 우간다우물선교헌금을 일천백오십만원(11,500,000원)을 15일 월드네이버스(세계선린회)에 기탁하다. <추후 우물명 “초동 생명샘”으로 설치 예정>
- 24일(주일), 8월 13일 당회결의에 입각하여 공동의회 <장로피택을 위한 3차 투표>를 진행하여, 황혜련 권사를 피택장로로 선출하다. (1,2차 투표에 선출된 조윤희, 김일중 집사는 개인 사유로 사퇴하다.)
- 29일(금) 오전 11시 추석합동 추모예배를 안성수양관 예배당에서 드리다.

2023. 10

- 31일(주일) 창립 78주년 기념주일로, 성만찬예식과 축하행사를 진행하고, 2부 예배는 ‘창립기념 온가족 예배’로 드리다.
- 8일(주일)-9일(월)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호산나성가대수련회를 진행한다.
- 11일(수) 수요일예배 후 ‘10월 구역장, 권찰 모임’을 3층 자비방에서 진행한다.

## 2023. 10

- 12일(목) 오전10시 30분,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제100회 정기총회'를 본 교회당에서 진행하다.
- 15일(주일) 오후 2시, '제52회 성가경연대회'를 본당에서 진행하여 총 12개팀(개인포함)이 참가하다.
  - 진행 : 김태현 집사 / 심사위원 : 손재연 집사, 이승연 성도
  - 대상 : 청년/청소년부 연합 / 우수상 : 어린이부
  - 장려상 : 드보라여신도회, 영아유치부 / 인기상 : 흥태경 어린이(유치부), 강귀순 권사 가정
- 15일(주일) 1부예배 후, 베다니 카페에서 '추수감사주일 기념 돈의동 이웃 떡 나눔'을 선교위원회 지역사회부 주관으로 진행하다.
- 11월 6일(월)-16일(목) 까지 예정되어 있던 '초동교회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지난 7일부터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취소되다.
- 20일(금) 소무의도 둘레길에서 '에스더회 수련회'를 진행하다.
- 29일(일) 오후 1시 '아브라함회 주최 초동 인문학 특강'을 아브라함실에서 진행하다.
  - 강사 : 이수웅 권사(건국대학교 중국문학과 명예교수) 주제 : 易詩
- 추수감사주일 절기헌금을 30,887,000원을 주님께 봉헌하다.

## 2023. 11

- 2일(목) 양평 용문산에서 '아브라함남신도회 가을야유회'를 진행하다.
- 4일(토) 오전 10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해단 모임'을 2층 난곡홀에서 진행하다.
- 12일(주일) 오전 10시 '수험생과 가족을 위한 기도회'를 2층 난곡홀에서 진행하다.
  - 김서연(김순종, 김순기 권사 손녀), 김예나(김성진, 김지연 집사 딸), 정세연(정유석, 임성희 집사 딸)
- 성지순례 취소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자비량 국내성지순례'를 진행하다.
  - 일시: 11월 23일(목)~24일(금) / 장소: 여수 애양원(故손양원목사 기념관), 고흥, 순천일대
  - 참가비: 1인당 20만원 / 참가인원: 24명
- 26일 오후 2시, '하반기 연합구역예배'로 본당에서 모인 후,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다.
- 초동교회 이진인 협동목사(영아유치부)가 11월 26일부로 사임하다.

## 2023. 12

- 매일 아침말씀 문자(카톡) "성탄을 기다리는 하루 말씀"을 전교인에게 발송하다.
- 22일(금) 오전 10시 30분, '돈의동 이웃들과 함께하는 성탄예배'를 2층 난곡홀에서 드리다.
- 22일(금) 오후 7시 30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초동교회 종로워십, '종로에 서서 서울을 품고')을 2층 난곡홀에서 진행하다.
- 24일(주일) 오후 2시, 성탄절 맞이 성극 '위로'를 2층 난곡홀에서 진행하다. (연출·극본 - 김동현 집사)
- 25일(월) 오전 6시, '성탄새벽 촛불기도회' / 오전 11시, '성탄절 온가족예배, 유아세례예식'을 5층 본당에서 드리다.
- 초동교회 박형종 전도사가 12월 31일부로 사임하다.
- 성탄절 절기 헌금 29,598,000을 봉헌하다.

2024. 01

- 2024년 초동교회 표어  
“마음을 같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빌립보서2:2)
- 2024년도 초동교회 청지기 임명
  1. 당회  
당회장 : 손성호 목사 / 서기 : 나호천 장로 / 사무장로 : 나호천, 윤동원, 정병우, 정용덕
  2. 제직회  
의장 : 손성호 목사 / 서기 : 정충교 집사 / 부서기 : 한윤석 집사 / 회계 : 정유석 집사  
부회계 : 박혜련 권사 / 감사 : 신수연 집사, 오현호 집사
  3. 각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 사역(부장, 차장, 위원회 추천)  
\* 위원회 추천은 추후 신도회 추천 추가

<b>기획위원회</b>	위원장 : 나호천 장로 카페,청춘식탁(부장 : 주준언, 위원회 추천 : 정충교, 정유석, 이해진) 행사(부장 : 강수연, 위원회 추천 : 김은혜) 교회식당(부장 : 송희경, 위원회 추천 : 김은희, 김난영)
<b>예배예전위원회</b>	위원장 : 정병우 장로 예배예전(부장 : 조윤희, 위원회 추천 : 황명희, 정여진, 양선미) 성가(부장 : 정춘, 위원회 추천 : 손재연, 권우용)
<b>선교위원회</b>	위원장 : 정용덕 장로 국내선교(부장 : 이명순, 위원회 추천 : 황혜진) 지역선교(부장 : 김인순, 위원회 추천 : 박소영, 고영민)
<b>교육위원회</b>	위원장 : 정형직 권사 인재양성(장학, 학사) 부장 : 서의경, 위원회 추천 : 이한나 영아유치(부장 : 김지선, 차장 : 김대홍), 어린이(부장 : 배윤정, 차장 : 지주현) 청소년(부장 : 임성환, 차장 : 김진우), 청년(부장 : 황태순, 차장 : 한신희)
<b>신도위원회</b>	위원장 : 황혜련 권사 새가족(부장 : 한윤석, 위원회 추천 : 임광택, 오은미, 장창호) 안내(부장 : 이명심, 위원회 추천 : 김관근, 김기희) 구제경조(부장 : 김선민) 전도(부장 : 장창호, 위원회 추천 : 김성열)
<b>미디어문화위원회</b>	위원장 : 이선옥 권사 방송미디어(부장 : 김태현, 위원회, 추천 : 황현정, 최선동) 문화사역(부장 : 김동현, 위원회 추천 : 엄경숙)
<b>교회역사위원회</b>	위원장 : 전홍빈 권사, 부위원장 : 심성섭 권사 자료기록(부장 : 조인철)
<b>재정재산위원회</b>	위원장 : 윤동원 장로 재정회계(부장 : 정유석, 위원회 추천 : 박혜련, 신원주, 김정현, 이종석) 재산관리(부장 : 이선종, 추천 : 남승우, 오현호, 김성진)
<b>수양관관리위원회</b>	위원장 : 박민균 권사



4. 성가대

시온성가대 (1부)	대장: 주대명 지휘: 권우용 피아노: 조은혜 오르간: 정춘	소프라노 : 김영숙, 김인숙, 박종숙, 이소애, 조성희, 신수연 알토 : 이선옥, 박은영 테너 : 김태수, 윤홍식, 주대명 베이스 : 조인철, 최선동, 조창연, 이민혁
호산나성가대 (2부)	대장: 우문환 지휘: 손재연 피아노: 최미진 오르간: 정춘	소프라노 : 강서형, 김은혜, 김태현, 방미경, 이수진, 임성희, 윤석송, 정여진, 최정빈, 황신자 알토 : 김선민, 김정민, 김지현, 유수민, 윤명자, 이민혜, 이승연, 이주은, 한연옥, 홍복림, 홍복희 테너 : 김민성, 김일중, 심성섭, 우문환, 이광식, 황태순, 황태영 베이스 : 김의환, 박정근, 양원석, 이세중, 이수진, 이제원, 이희철, 한동효, 황성길
할렐루야성가대 (오후)	대장: 임광택 피아노: 박은영	소프라노 : 김기연, 김미옥, 김수자, 노계옥, 박영란, 박향숙, 신이섭, 엄경숙, 오혜진, 유정열, 이순안, 이춘애, 최영희 알토 : 김기련, 김명숙, 김향숙, 양선미, 오명희, 이소희, 이은숙, 이현자, 조향남, 한연희 테너 : 나호천, 임광택, 정용덕 베이스 : 김경행, 김진만, 이시중, 최병락

5. 지구, 구역, 구역장, 권찰

교구	사역자	지구	지구장	구역	구역장   권찰
1교구	문정영 전도사	교회동 1지구	윤동원 장로	종로/성북/동대문	이순안   이명순
				중구/성동/광진	윤명임   이명심
		교회동 2지구	정용덕 장로	종랑/노원/도봉/의정부	강수연   박향숙
				강동/송파	심숙희   박혜련
2교구	임하늘 목사	교회서 1지구	황혜련 권사	서대문/마포/강서 /양천/용산	홍복희   강현정
				구로/안양/군포/인천	김기연   황혜진
		교회서 2지구	임광택 장로	일산	황명희   백성애
				은평/삼송	장희진   강수연
3교구	박학송 목사	교회남 1지구	정병우 장로	강남/서초/관악/동작	김선민   지주현
				분당	김미옥   이선옥
		교회남 2지구	나호천 장로	용인1	김익겸   이희복
				용인2	최동익   유정열

5. 교회학교

부서	담당 사역자	부장/차장	교사
영아유치부	김미란 목사	김지선(부장) / 김대홍(차장)	김옥비, 김벼리, 정은지
어린이부	차은종 교육전도사	배윤정(부장) / 지주현(차장)	유다은, 손혜윤, 박소영, 김요한, 조요한
청소년부	박학송 목사	임성환(부장) / 김진우(차장)	간규원, 김동현, 문신희
청년부	박지은 목사	황태순(부장) / 한신희(차장)	

2024. 01

• 2024 새해 초동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활력이 넘치는 믿음생활·교회생활 12계명**

1. 주일을 지킵시다. 예배로 모이는 생활부터가 교회봉사입니다.
2. 온전한 십일조생활로 주님의 소유된 삶을 고백하는 헌신을 실행합니다.
3. 매일 정한 분량으로 성경을 읽어서 말씀으로 단단해 집시다.
4. 규칙적인 기도생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실천합니다.
5. 가족들과 떠나있는 형제들을 교회로 이끌어줍니다. 교회는 구원의 열린문입니다.
6.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선교하고, 후원하고, 전도하고 구제합니다'
7. 은혜와 평강은 감사로부터! 범사에 감사합니다.
8. 주정헌금, 감사헌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몸의 실행을 부추깁니다.
9. 성도의 미덕은 화목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깁시다.
10. 사랑의 실천은 봉사입니다. 먼저 앞장서 섬기며 은혜 받읍시다.
11. 가정은 작은 교회, 성도의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12. 언어부터 변화됩니다. 서로 존대하고, 직분과 함께 정중히 호칭합니다.

• 7일(주일) 2부 예배 후, <전교인 / 제직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다.

• 2024년 각 신도회 고문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다.

- 아브라함남신도회(고문 김익겸 장로)
- 한나여신도회(고문 임광택 장로)
- 야곱남신도회(고문 이민호 장로)
- 에스더여신도회(고문 정병우 장로)
- 다윗남신도회(고문 윤동원 장로)
- 루디아여신도회(고문 주인기 장로)
- 바울남신도회(고문 정용덕 장로)
- 드보라여신도회(고문 오명희 장로)
- 청년신도회(고문 나호천 장로)
- 마리아여신도회(고문 황혜련 권사)

• 새해부터 은혜성경일독과 함께하는 <열린 성경공부>를 시작하다.

- 일시와 장소 : 매 주일 오전10시, 1층 베다니카페(손성호 담임목사)

• 초동교회 어린이부 교육전도사로 차은중 전도사(한신대 신학대학원 M.div)가 부임하다.

• 20일(토) 오후 4시, 난곡홀에서 남신도회 간친회를 진행하다.

• 주일(21일) 오후 4시 30분 <서울장로회 제45회 정기총회>를 본 교회당에서 진행하다.

• 정용덕 장로가 서울장로회 회장으로 취임하다.

• 풀밭 제162호를 발행하다.

•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회주일로 지키고, 루디아회장 이명심 집사가 <여신도회 사업보고>하다.

- 전체여신도회장 김선주 권사
- 한나회회장 김기련 권사
- 에스더회장 홍복희 권사
- 루디아회장 이명심 권사
- 드보라회장 강수연 집사
- 마리아회장 김은혜 집사

## 2024. 01

- 2024년 제직수련회를 진행한다.
  - 일시 : 1월 28일(주일) 오후 1시 30분 ~ 4시, 본당
  - 주제 : 화합과 일치로 전진하는 초동
  - 내용 : '선한 능력으로'를 부른 [찬양사역자 나무엔 (김성호 목사) 찬양 콘서트]  
각 신도회별 <다과와 친교 / 미션 수행 / 종합토론>

## 2024. 02

- 1일(목) 오전 11시, 본당에서 여신도1일기도회 / 간친회를 진행한다.
- 3일(토)~4일(주일)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경북노회 영주중앙교회에서 진행된다.
- 10일(토) 오전10시, 2층 난곡홀에서 동의동선교연대 주관 '설맞이 이웃 초청행사'가 진행된다.
- 14일(수) '재의 수요일 예배'로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되다. (3월 30일 부활전야까지)
- 2024년 사순절[한절 말씀과 묵상(고난의 잔이 은혜의 잔으로)]달력을 발행, 전교인에게 배부하다.
- 17일(토)~18일(주일)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된다.  
(야외-어린이대공원 눈썰매장)
- 2024학년도 교회학교 졸업과 진급 대상자를 축하하다.
  - 영유치부 졸업 : 서선규, 이지민, 홍태경
  - 어린이부 졸업 : 강현, 김보현, 임지민
- 25일(주일) 오후 1시, 아브라함남신도회 주관 인문문화예술 특강을 1층 베다니카페에서 진행한다.
  - 강사 : 박정근 권사 (전 세익스피어학회 회장)
  - 주제 : 세익스피어를 사랑한 베르디, 오텔로를 중심으로

## 2024. 03

- 1일(금) 오전 10시 ~ 오후 2시까지 3.1절 산상기도회를 서대문 안산자락길에서 모이다.
  - 참가신청 : 남승우 권사(야곱회남신도회장), 주준언 집사(다윗남신도회장)
- 3일(주일)부터 교회 계단 (1층 - 5층) 및 내벽에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를 성도들이 몸소 체험하도록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만들어 부착해 놓다.
- 9일(토)-10일(주일)까지 청소년부 겨울수련회를 교회내에서 진행한다.
- 10일(주일) 2부 예배 후, 신익호 원로목사님 구순축하연을 교회 주관으로 본당에서 진행한다. 연회 후, 당회와 여신도회가 아가페 식사를 제공한다.
- 10일(주일) 오후 2시, 연합구역예배로 본당에서 모인 후, 각 구역별로 예배드린다.
- 16일(토) 오전 7시 <3월 연합기도회>로 본당에서 예배드린 후, 위원장 회의를 진행한다.
- 16일(토) 오전 10시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를 신도회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진행한다.
- 24일(종려주일) 부활절 맞이 세례 및 유아세례를 거행하다.  
성인세례 : 이근욱, 임주영 / 유아세례 : 정온유(정원영, 주은희 집사의 둘째딸)

2024. 03

-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 25일(월) ~ 30일(토) 매일 오전 6시 30분 본당  
(주제 : 하루에 세 번 기도하라)  
- 신도회별 특송 : 월(아브라함회남신도회), 화(한나,루디아여신도회), 수(야곱, 다윗남신도회), 목(에스더,드보라여신도회), 금(성가대연합), 토(바울남신도회,마리아여신도회, 청년신도회, 청년부)
- 최후의 만찬 기념 예배와 애찬 : 27일(수) 오전 11시 본당,
- 성금요일 십자가행진, 참회의기도 : 29일(금) 오후 7시 본당,
- 부활절 새벽촛불기도회 : 31일(부활주일) 오전 6시 본당,
- 부활주일 예배(성만찬예식) : 31일(주일) 오전 8시(1부), 오전 11시(2부)
- 제32회 성경암송대회 : 31일(주일) 오후 2시 본당(주관 : 신도위원회, 진행 : 김지현 집사)  
암송말씀: 고린도전서 13:1-13, 15:12-22, 히브리서 11:1-12  
대상: 신경숙 집사 / 최우수상: 드보라회 / 우수상: 박아현 어린이, 강수연 집사  
믿음상: 루디아회, 야곱회 / 소망상: 청소년부, 바울회 / 사랑방: 청년부, 에스더회  
인기상: 어린이부
- 부활절 달걀나눔 : 31일(주일) 1부예배 후 선교위원회 주관 돈의동 지역 나눔

2024. 04

- 2024년 1학기 <초동장학생>으로 김옥비, 김버리 청년이 선발되다.
- 14일 오후 2시 주일찬양예배는 초동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2층 난곡홀에서 영화 "순종(김동민 감독)"을 상영하다.
- 부활절을 맞아 절기헌금 30,018,000원을 봉헌하다.
- 4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2부 예배 후, <권사 임직 및 서리집사 임명대상자 교육>을 진행하다. (권사 임직교육: 본당, 집사임명교육: 3층 평화방)  
- 권사 임직 대상자(9명): <남> 김영호 <여> 고영민, 김은희, 김지선, 이미경, 정춘, 조성희, 조윤희, 황신자  
- 집사 임직 대상(4명): <여> 김명옥, 이승연, 조은애, 최정빈
- 4월 24일(수)부터 초동가족주일 준비를 위한 '기관장, 구역장, 권찰 연석회의'를 진행하다.
- 23일(화) 아브라함신도회 봄 야유회가 '서울식물원(양촌향교역)'에서 진행되다.
- 25일(목) 루디아여신도회 수련회가 '축령산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다.

2024. 05

- 5일(주일) 어린이,청소년주일을 맞아 2부 예배 후, 12:30~1:30까지 1층 로비에서 놀이마당 및 축하행사를 갖습니다.
- 12일(어버리주일)을 초동가족주일 및 총동원주일로 드리다.  
- 연주: 김수현 집사 (바이올린 / 김창국, 이호순 목사 따님), 손미래 성도 (오보에 / 전석종 성도 부인, 심숙희 권사 며느리)  
- 특송: 교회학교(영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 찬양예배(초동 성가대 찬양제): 시온, 호산나, 할렐루야 성가대 출연

## 2024. 05

- 성극준비를 위한 배우 및 스텝을 모집하다. (11월 3일(주일) 오후 2시 예정)
  - 기간: 5월 26일(주일)까지 / 대상: 성극에 관심있는 청년 / 장년 교우
  - 문의 및 신청: 임하늘 목사(기획), 이선옥 권사(미디어문화위원장), 김동현 집사(연출)
- 12일(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어르신(1950년생 이상)들을 위해 선물(약과 세트)을 드리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다.
- 17일(금) 오전 10시, 4층 식당에서 기드온섬김용사운동 김치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 19일(주일) 2부 예배 중 세례예식을 거행하다(최재희 성도).
- 19일(주일) 2부 예배 후, 아브라함 남신도회가 주관하는 '구순축하와 감사'행사가 오후 1시, 3층 아브라함실에서 진행된다(대상: 김창국 목사, 김익겸 장로).
- 26일(주일) 오후 3시, <장로, 권사 임직 임직예배와 예식>을 본당에서 교우들과 내빈들을 모시고 진행한다.
  - 장로 임직(1명): 황혜련 권사
  - 권사 임직(11명): <남> 김영호, 장창호(인준) <여> 고영민, 김기희(인준), 김은희, 김지선, 이미경, 정춘, 조성희, 조윤희, 황신자
  - 서리집사 임명 (2부 예배 중) : 김명옥, 이승연, 조은애, 최정빈
- 베다니카페 오픈 예정인 초동비밥(회원제 교회 주변 청년/직장인 점심식사 프로젝트) 활동에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다. (봉사시간: 화~금 오전11시~오후2시 / 자원봉사는 순번제로 / 문의: 박학송 목사, 나호천 장로)
  - 50인 이하, 네이버 예약제)
- 1층 초동어린이집 CCTV 교체 : 교회와 종로구청, 어린이집이 협력하여 노후된 어린이집 CCTV를 교체하다. (총 비용 300만원, 교회 100만원 지원)

## 2024. 06

- 6월 4일(화) 전체여신도회 수련회로 초동교회 안성수양관 / 경기도 이천 새터교회를 방문하다.
  - 주제: 마음을 같이하여 내 집을 채우라.(눅14:23, 빌2:2)
- 베다니카페 오픈 예정인 '초동비밥'을 위한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다. 20일 완공 / 23일(주일) 2부 예배후 1층 카페 리모델링 감사기도회 진행.
- 16일(주일) 오후예배 후, 4층 베다니석에서 '상반기 새교우 간담회'를 담임목사와 진행한다.
- 19일(수) 수요일예배 후, 기드온섬김용사운동 오이 지나눔봉사를 지하1층 선행방에서 진행한다.
- 30일(주일) 오후 찬양예배와 함께 본당 오르간 봉헌예배로 드리다.

2024. 06

본당 오르간 봉헌 감사 연주 프로그램

일시 : 2024년 6월 30일 오후 2시, 본당  
연주 : 정춘 권사 (초동교회 오르가니스트)

1. 주 품에 잘 알려진 복음성가곡을 오르간을 위해 편곡한 곡.
2. *Prelude et Toccata sur Victimae Paschali Laudes*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을 기억하라> Denis Bedard  
오늘날에도 불리어지는 그레고리안 성가
3. *Jesus bleibet meine Freude..J. S. Bach*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바하 칸타타 147번에 나오는 잘 알려진 곡.
4.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A. L. Travis*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멜로디를 주제로 한 변주곡

- 30일(주일) 오후 찬양예배후, 정기당회 및 신임장로 환영회를 6층 당회실에서 진행한다.

2024. 07

- 1일(월)부터 매주 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년문화사역 '초동비밥' 사역(예약제 (49인 한정)로 운영되는 청년, 대학생, 직장인 점심 프로젝트)을 1층 베다니 카페에서 시작하다.
- 7일(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제1회 구역 대항 지구별 성경퀴즈대회를 진행한다.  
주관 : 신도위원회, 진행 : 임하늘 목사  
범위 :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방식 : 지구별 대항전  
교회동1지구(운동원장로) / 교회동2지구(정용덕장로) / 교회서1지구(황혜련장로)  
교회서2지구(임광택장로) / 교회남1지구(정병우장로) / 교회남2지구(나호천장로)  
수상 : 대상(교회동1지구) / 금상(교회동2지구) / 은상(교회서1지구) / 장려상(교회서2지구),  
(교회남1지구), (교회남2지구)
- 교회학교 여름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 영아유치부 : 7월 20일(토) ~ 21일(주일) / 본 교회당  
[주제: 예수님 감사나무 아래에서 함께 해요.]  
- 청소년부 : 7월 26일(금) ~ 27일(토) / 초동교회 안성수양관  
[주제: 예수님과 함께 누려요.]  
- 어린이부 : 8월 2일(금) ~ 3일(토) / 본 교회당, 야외활동(시랄라 워터파크)  
- 청년부 : 8월 15일(목) ~ 17일(토) / 부산 해운대 온 리조트(달맞이교개)
- 21일(주일) 오후 12시 50분, 아브라함남신도회가 주관하는 제2회 <인문문화예술특강>을 베다니카페에서 진행한다(강사 : 이민호 교수 / 주제 : 윤동주, 병든 나라에 온 천사).

2024. 08

- 8월 2일(금)-4일(주일), 호산나성가대 여름수련회를 신안비치호텔, 목포양동교회에서 진행한다.
- 2024학년도 2학기 초동장학생으로 김옥비, 김벼리, 정다희 청년을 선발하다(교육위원회).

## 2024. 09

- 1일(주일) 오후 찬양예배를 <장로피택을 위한 특별기도회>로 모이다.  
장로 피택을 위하여 당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서, 당회는 세례교인 명부를 확인하고 선거를 준비한다.  
- 장로 피택을 위한 선거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당회서기로 한다.  
- 장로 피택은 남, 여 구분없이 5명으로 한다.  
- 9월 22일 공동의회시 1, 2차 투표로 진행하며, 필요시 추후 당회의결로 차수를 확장한다.  
- 1차 투표는 기명투표로 진행하며, 투표인수 2/3 이상 득표자를 우선 피택한다.  
- 2차 투표는 하위 득표자를 1.5배수하여 이름이 표기된 투표지를 준비하고 실시한다.
- 14일(토) 오전 11시, 추석합동 추모예배를 안성수양관 예배당에서 드리다.
- 22일(주일) 오전 11시,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본당에서 진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나호천 장로  
위원 : 임하늘 목사, 정용덕 장로, 주인기 장로, 이경로 권사, 김선주 권사, 박소영 청년  
공동의회 1,2차 투표를 통해 이선종 집사, 주준언 집사가 신임 피택장로로 선출되다.
- 22일(주일), 한신과 기장교단의 태동을 이끈 만우 송창근 박사에 대하여 <만우 송창근 박사 기념사업 회보>를 제작하여 전교인에게 배부하다.
- 24일(화)-26일(목), 한국기독교장로회 109회 총회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진행한다.  
- 서울노회 총대 참석: 정용덕 장로  
- 3대 장로 수상: 황혜련 장로 / 신임 총회총무 선출
- 장례(초동교회장) : 故 최동익 장로(권순정 장로 부군), 9월 30일(월) 소천, 10월 2일(수) 장례

## 2024. 10

- 6일(주일) 창립79주년 기념주일로 2부 예배를 성만찬예식과 기념행사로 본당에서 드리다.
- 6일(주일) 오후 2시, 제53회 성가경연대회를 본당에서 진행한다.  
(주관-예배예전위원회, 진행-임하늘 목사)  
- 대상: 루디아회 / 우수상: 드보라회 / 장려상: 어린이부 / 인기상: 에스더회, 어린이부
-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다(9인).  
- 고문: 원로장로 / 위원장: 나호천 장로  
- 위원: 임하늘 목사, 이선종 집사, 주준언 집사, 이경로 권사, 황태순 집사, 김선주 권사, 조지영 집사, 정은지 청년
- 8일(화), 남이섬에서 에스더회 여신도회 가을수련회를 진행한다.
- 15일(화) 오전 9시 30분-12시 30분, 기드온섬김용사운동 대외봉사를 대한적십자에서 '사랑의 빵 나눔'으로 진행한다.  
- 장소: 종로 빵 나눔터 (담당: 임하늘 목사)
- 24일(목)-25일(금), 선교위원회 국내선교부 주관 '자비량 국내선교여행'을 진행한다.  
(참석인원: 총25명) / (담당: 부장 이명순 권사)  
-선교방문지: 부산노회 울산성민교회(김원순 목사 시무), 동해 대왕암 일대, 태화강 등 울산지역 관광 병행
- 31일(목), 한나여신도회 가을야유회, 강화 화개정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1-4]





초동교회 풀밭 제163호

# 4부 초동문단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어린이부

詩 **‘가을’** 차오성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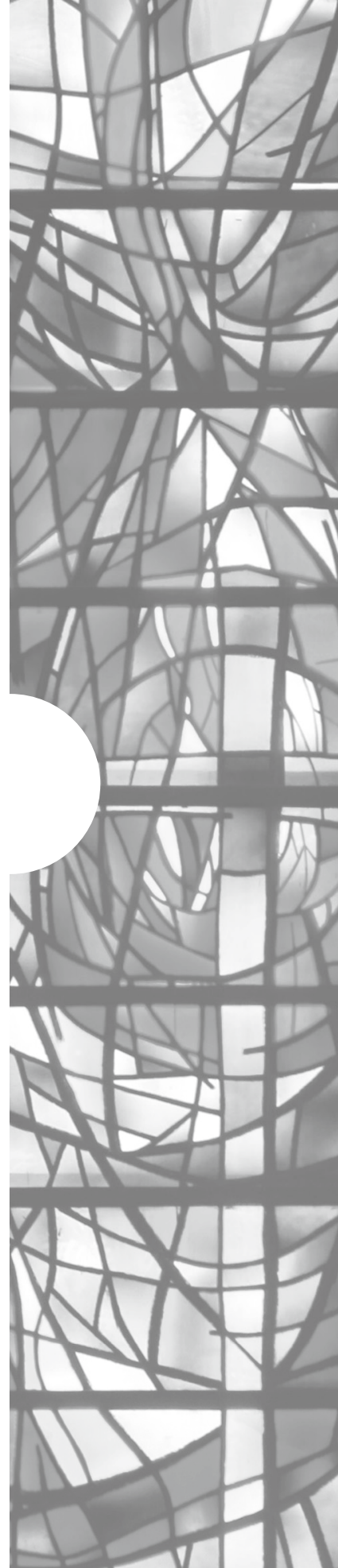
詩 **‘일흔 아홉 초동교회’** 이소희 권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순종 권사

**‘아들을 장가보내며’** 이선옥 권사

**‘영육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천광 목사

**‘산토끼 토끼야’** 서동헌 집사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안녕하세요. 2024년 어린이부를 섬기고 있는 차은종 전도사입니다. 2024년 어린이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려요’ 주제로 하나로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린이부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동은 어린이부 친구들이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과 가족, 친구 등에게 받았던 사랑을 생각해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글로써 표현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어린이들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부 배운 줄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

- 편지로 부모님께 사랑을 전달한다.
- 친구와 간식을 나누어 먹고 떠든다.
- 다친 친구를 위로해 준다.
- 친구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도와준다.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봐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부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

4-4 김가는

- 친구의 괴롭힘을 막아준 친구를 사랑해요.
- 교회에서 같이 노는 (오승아)에게 사랑해요.
- 웃성기 선수가 있어서 사랑해요.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봐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부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

서예현

우리한테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우리 할매를 사랑  
항상 배려해주고 잘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항상 키워주시고, 간호해주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요!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사랑해주신 교장 선생님을 사랑  
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고 알려주신 목사님과 전사님  
선물과 사랑을 항상 주신 우리 할아버지를 사랑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모든걸 참조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  
하나님으로 부터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여  
을 사랑합니다.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봐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부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

서진이가 어몽이스 스텐키  
준니 사랑해요,  
서진이 아비바 핫노그 구리 바기  
도넛즈 포켓몬 빵을 사  
준 서진이 아비바를 사랑  
해요.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봐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김선우



초등학교 어린이부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김정아

저는 맛있는 간식과 선물을 많이 주고 언제나 저를 배려해주는  
제외 친구를 사랑해요.♡

저는 언제나 멋지고 예쁜 저 자신은 사랑해요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부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홍준서

저	는	부	모	님	과	선
생	님	들	과	사	이	생
친	구	들	이	게	사	랑
전	달	하	고	남	의	모
와	나	함	면	만	진	꿈
을	만	들	이	주	고	우
리	성	강	을	키	워	줘
그	래	서	사	랑	을	
전	달	해	주	고	살	어
						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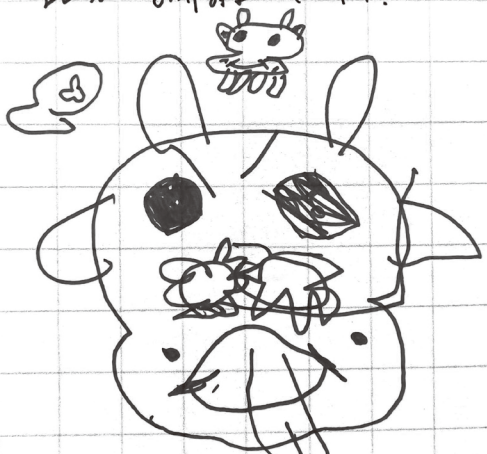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부 김예주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승주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승주가 좋아하는 승주와  
만든 것 함께하고 있어요.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부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김진욱

나는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부모를 표현해서  
편지를 써서 표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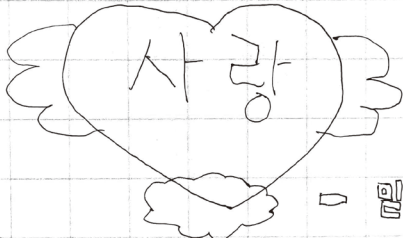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부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

모든 아침에  
웃으며 골라주신  
엄마를 사랑해요.

어제 맛있는 밥을  
해주신 할머니를  
사랑해요.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부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

흥태정

1. 나는 친구한테  
간식을 나눠주면서  
사랑을 표현해요.\*

2. 나는 엄마, 아빠  
할머니에게 안아주  
면서 표현해요.\*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부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

할머니를 아끼기  
고맙게 주셔서 사  
랑해요.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사랑해요. 하나님  
이 기쁘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  
랑해요. 맛있는 음식  
을 주신 엄마 아  
빠를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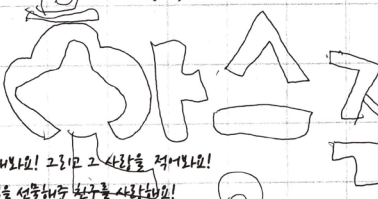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부

##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

1. 환금음악을 보낸 해준  
예수를 사랑해요.  
2. 인영유치원아랑 같이  
노래를 해주신 사랑  
해요.

음악 전사와 특수  
운투쓰리 구종돈  
이를 해준 세  
사랑해요.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초등교회 어린이부      권   세   현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엄   마   가   제   가   아   플   때  
 간   호   해   주   셔   서  
 사   랑   해   요   .   ♥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보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초등교회 어린이부      김   연   재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내가

엄   마   가   아   플   때  
 도   와   줘   셔   사   랑   해   요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보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유영관      초등교회 어린이부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나는 나에게 간식을 주는 친구를 사랑해요  
 나는 나에게 밥을 주는 엄마를 사랑해요  
 나는 ~~내게~~ 위해 일하는 아미자를 사랑해요  
 나는 새뱃돈을 주는 환희나,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보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초등교회 어린이부

나의 사랑을, 나의 밖으로 :)♥

재미를 주는 포켓몬과 교회를 사랑해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김도윤

Tip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적어보요!  
 ex)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준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해요!



# 詩 가을



차오성 권사

가을은  
유난히 색깔이 예쁜 계절입니다.  
높고 파아란 하늘을 만끽하고  
세월따라 익어가는 낭만의 계절

향기롭고 예쁘고 아련한 코스모스처럼  
행복과 사랑 듬뿍담아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는  
신자되기 원합니다

# 詩

## 일흔 아홉 살 초동교회

나의 집  
우리 모두의 집  
이곳에 오면  
안아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붙잡아주는 손이 있는 곳

밤낮으로 머리숙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과 위로가 있는 집  
꿈에도 가고 싶고 그리는 곳  
일흔하고도 아홉해동안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을 지켜온  
가문의 아름다운 집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가 좋아서 모인 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집  
믿음으로 영혼까지 푹푹몽쳐  
복음 들고 세계만방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우리 초동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소희 권사

#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순종 권사

추수감사주일이 낀 가을 밤하늘에는 북두칠성을 위시해서 무수한 별들과 은하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수 세기에 걸친 천문학자들의 학술적 견해에 의하면 우주(宇宙)의 생성은 지구시간 계산법(地球時間計算法~Chronological time computation basis)으로 計算 해볼 때 약 1백 억년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시초(始初)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태양(太陽)을 창조하신 후 태양계(太陽系)의 影響을 받는 지구(Earth), 그리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과 여러 갈래의 은하 수군(郡)을 창조하신 것으로 천문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넓이(?)에 관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5백80만 Km, 태양의 온도는 36,000도(F)이며 면적은 지구(地球)의 109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地球와 銀河水郡間의 거리는 14億光年이라는 것이 天文學者들의 말입니다. 以上과 같은 天文學者와 神學者들의 研究에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image)과 모양(likeness) 데로 창조하셨고 그 뜻은 여차하게 창조된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마음과 감정을 갖춘 靈物로 만들어 하나님(造物主)과 항상 교제(기도) 할 수 있는 智慧를 가지고 있는 것이 人間 임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 나누셨다.

로마서 9:5에 依하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 인간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초동교회 창립79주년 기념과 성탄절을 앞두고 로마서 9장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많은 연로 교우들의 작고를 애도하면서 저의 글을 끝마칩니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ancel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Amen*

오덕준 장로님과 조향록 목사님, 주병건 장로님, 황금찬 시인, 아브라함 남신도 회원님들, 그리고 최근 작고하신 최동익 장로님, 故 전재근 권사님의 소전을 애도하면서 ...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본집 기도실에서  
김순종 권사

# 아들을 장가보내며



이선옥 권사

새벽이 눈이 떠졌다. 그래. 오늘 아들 현우가 장가가는 날, 장남이며 막내인 하나뿐인 아들, 늘 바쁘다는 말이 떠날 새가 없는 직업을 가진 아들, 엄마로서 도울 길은 우리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길 뿐.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옷은 격식에 맞게 잘 입고 다니려나.. 잠은 잘 자고, 운동은 잘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기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이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이제 2024년 6월 1일 한 여자의 지아비로 한 몸을 이뤄 가정을 이루는 날,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단다. 독립된 가정으로 경제를 책임지며 언젠가 맞이할 너의 아이들, 부모로서 양육하는 기쁨과 고통을 맛보게 되겠지. 그때마다 현우야, 지수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렴. 아직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너희들, 우리 주님 계획 속에서 너희들은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리라 믿고 있단다. 이웃들과 너희들이 접하는 외국인, 이방인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좋겠다.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것, 그 이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의지가 되어주면 좋겠다. 엄마는 되돌아보면 그런 기회는 계속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 시간을 현명하게 배분해 쓰려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축복 주심으로 지금까지 열심을 내어 살아왔구나. 주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될 터인데... 사랑하는 현우야! 지수야! 두 손 모아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 간구하자꾸나. 그 원대한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지. 하지만 때로는 따사로운 사랑으로, 엄한 가르침으로 깨우치시는 것으로 주님의 품속에 있음을 느끼고 있지. 현우야. 기쁨과 희락의 가정의 가장으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엄마는 소망하고 있단다. 비록 금방 보이지 않더라도 낙망하거나 실족지 말아라. “내 아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에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와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잠언 3:21-22).

너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길이 보일 거야. 너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실 거야.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조용히 기도하는 현우, 지수이길.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외할머니는 엄마, 아빠에게 ‘너무 애쓰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지. 그 마음을 이제 좀 알 것 같다. 현우야, 지수야, 사랑한다.

2024. 6. 1. 엄마가



# 영육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천광 목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일컬어 흔히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때아닌 폭풍을 만나듯이, 인생에서도 잔잔한 바다를 지나다가도 폭풍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가정이, 어떤 때는 사업에 폭풍이 불어 대어 자신과 가정과 사업을 모두 삼켜 버립니다. 그중에서도 질병으로 인한 폭풍의 괴로움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죠. 영혼의 질병은 죄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질병, 마음의 질병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질병, 그리고 육신의 병으로 오는 질병입니다. 영혼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은 의사나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영혼, 마음, 육신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키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고, 여기 치료하는 빛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데,

그 뜻의 명사는 '의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듯,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천사 라파엘도 치유의 천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 천사). 즉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환경까지도 쓴 물에서 단물로 고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하신(이사야 50:5-6)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는데, 1) 천국을 소개하시고 2) 전도하시고 3) 환자를 치유하셨는데(마 4:23), 이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관심이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혼 치유와 마음의 치유,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영혼의 무거운 질병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서 죄의 댓가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 제사 드려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어린양이 되어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죄의 댓가인 사망에서 건지사 영생으로 인도 하사,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혼의 무거운 죄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질병에서 해방시켜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 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누가복음 24:3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 5:16-17). 또 구약 잠언 17: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과 정신적인 질병은 의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풍요롭고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갖고 있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본인은 남몰래 고통과 싸우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승적인 마약 복용자가 늘어나고, 술집과 클럽등 향락 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 받으려면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셋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질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편치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문안할 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지금 무슨 질병으로 편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묻은 것입니다. 사실 본인이나 가정에 질병이 생기면 가정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 사역에서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면서(마가복음 1:26, 30),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마가복음 2:1-12).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 귀가 안 들리는 자, 눈이 먼 자, 앓은뱅이, 문둥병, 절름발이, 중풍병자 등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은 과학에 의한 치료이지만, 예수님은 초 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세상에 질병의 종류는 약 12,000~13,000가지인데, 그중에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영역은 약 3,000가지 내외이고, 나머지 약 10,000여 가지는 하나님 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데 더욱 열중하셨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고치시더라”(마태복음 4:24)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를 부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야고보서 5:14 )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총체적인 구원사역이십니다. 첫째는 영혼의 구원인 죄의 문제를 치유해 주셨고, 둘째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셋째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 산토끼 토끼야!



서동헌 집사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낮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잠언 3:13-15).

산토끼를 사로잡기로 결심하였다. 시골집 대나무숲 바위 아래에는 산토끼가 살고 있는 작은 굴이 있었다. 이 굴속에 산토끼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이 영리한 산토끼는 자신이 드나드는 굴 입구에 항상 마른 대나무 잎을 물어다가 쌓아놓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이 살고 있다는 흔적을 감쪽같이 숨기는 아주 영리한 놈이었다.

이 대나무 숲에는 내가 가끔 들어가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우연히 산토끼의 거처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다름질로 산속에서 경주하여 산토끼를 사로잡는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어리석은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그것은 나에게 유리하고 산토끼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마련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나는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산속에서는 모든 조건이 산토끼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고교 시절(1960년대 초) 가장 신체조건이 활달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 핵심은 바로 눈(snow)이다. 우선 눈이 쌓여야 한다. 눈이 쌓이면 산토끼는 자신의 발자국을 숨길 수 없게 된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꾸준히 끈질기게 쫓아가면 언젠가는 지치고 지친 산토끼를 따라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눈이 적당하게 오면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 그것은 눈이 무릎 정도까지 쌓이는 것이다. 산토끼는 자신의 키를 넘는 눈을 헤치고, 도망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물론 쫓아가는 나도 힘겹겠지만 산토끼는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해 겨울이 오고 얼마 동안 기다린 끝에 참으로 가장 좋은 조건이 마련될 날이 왔다. 하얀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인 날이 온 것이다.

산토끼는 자신의 영역 내에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만 다니는 습성이 있다. 대개는 사람이 다니는 산길과 겹쳐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덤불 사이로 자신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장독대에 피라미드형으로 쌓인 눈을 보며 나는 드디어 겨루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확인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피라미드형의 눈을 보니 밤새워 바람 한 점 없이 소록소록 눈이 쌓인 것이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여유를 부리다가 찢 고구마 두 개를 주머니에 넣고 대나무 숲으로 갔다. 신발을 새끼줄로 끈 끈 묶어 매어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토끼굴 앞으로 다가갔다. 물은 필요 없었다. 지천으로 쌓인 눈을 뭉쳐서 먹으면 그만이다(당시에는 공해가 없었다). 토끼굴 앞에는 이미 밖으로 나간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대나무 숲 끝자락에 있는 키 작은 산죽을 뜯어 먹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떠올랐다. 토끼굴을 준비해 간 장애물로 튼튼하게 막아놓고 나는 발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짐작대로 눈 위에 솟아 나온 키 작은 산죽잎을 까치걸음으로 뜯어먹고 있던 산토끼가 기겁하여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사실 나는 산토끼를 간단하게 잡을 수도 있었다. 굴 입구에 정교하게 울무를 설치하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 쉬운 방법을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울무에 걸린 산토끼는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거의 100% 죽게 되어 있다. 잔인하고 몰인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나는 바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제 산토끼의 발자국만 추적하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산토끼는 급하게 뛰면 땀수룩 쌓인 눈 속에 처박히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건강한 놈이기 때문에 눈 속에 처박히면서도 끈질기게 달아나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토끼의 뒤를 따라 걷고 또 걸었다. 산등성이에서 할딱거리며 서 있는 산토끼를 마주 보게 되었다. 나는 아주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갔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은

나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고 있었지만 나는 같은 속도로 꾸준히 걷고 또 걸었다. 산토끼의 달아난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짜마다 울려 퍼지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가고  
산골짜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하얀 눈 산에 울려 퍼지고 있는 내 숨찬 노랫소리는 산토끼에게 천둥과 같은 공포로 다가갈 것이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가봤지만 나는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며 발자욱을 쫓아갔다. 드디어 지친 산토끼가 가깝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팔짝팔짝 뛰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팔짝거리다가 뒤돌아 보기를 계속하면서 토끼는 끈질기게 달아나고 있었다. 나는 결코 뛰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나도 떨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체력이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거의 한나절을 무릎까지 빠지는 산속을 헤매었으니 파김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만 포기하고 눈 밭에 드러눕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다 잡아 놓은 산토끼를 놓칠 수는 없었다. 마음의 갈등을 다 잡고 있을 때 조용한 변화가 있었다. 산토끼가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멈춘 것이다. 눈 속에서 고개만 내 놓고 할딱거리고 있는 산토끼에게 천천히 다가가 두 귀를 몰아 잡았다. 뒷발을 몇 번 허우적거리다가 산토끼는 잠잠하게 늘어졌다. 아! 드디어 해 내었다. 두 귀를 잡고 손바닥을 모로 세워 수도로 뒷덜미를 내려치면 산토끼는 온몸에 파들과들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게 된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 선량하게 빛나는 산토끼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나는 산토끼의 애소를 읽어내고 있었다.

항복! 항복!  
제가 졌어요. 살려주세요.

산토끼의 눈물 고인 호소를 읽어내는 순간 나는 놓아 주기로 결정하였다. 참으로 멋진 승부를 겨루었기 때문에 조금도 미련이 없었다.

그래 산토끼야!

가거라,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는 늘어진 산토끼를 눈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치고는 파랗게 빛나는 하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련 없이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와 대나무숲에 있는 내가 막아 놓았던 장애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는 집에 돌아와 혼곤한 잠 속에 빠져 들어갔다. 죽음과 같은 잠 속에서 깨어난 것은 다음날 오후였다.

5월의 늦은 봄, 주말 나는 시골집에 내려가 대나무 숲 내 쉼터에서 나만의 명상에 잠겨 있었다. 청정한 대나무 숲의 공기는 나를 무아의 경지로 이끌어 준다. 어느 순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가만히 눈을 떠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앙증스럽게 예쁘고 귀여운 산토끼 새끼들이 내 주위에서 뛰놀고 있는 것이다. 숨을 죽이고 세어보니 모두 일곱 마리다. 너무나도 귀여운 놈들이 대나무 숲을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것이다. 그때 한 놈이 짹짹거리는 소리를 냈고 동시에 일곱 마리의 새끼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참으로 순식간의 일이었다. 나무토막처럼 움직이지 않아 있는 나를 인식한 예민한 놈이 경계의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대숲을 빠져나오는 나는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산토끼 토끼야	산고개 고개를
어대를 가느냐	나 혼자 넘어서
강충강충 뛰면서	토실토실 밤송이
어대를 가느냐	주어서 올테야

5월의 포근한 햇살이 온누리를 감싸주고 있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역대하 5:13]



초동교회 풀밭 제163호

# 5부 2024년 초동교회

**예배 및 행사일지**

**교우소식**

**편집후기**



# 2024년 예배 및 행사일지

- 
- 1/1 새해아침 온가족예배, 성만찬예전
  - 1/2 여신도회 1일 기도회
  - 1/4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새해맞이 예배 및 신년하례회(초원교회)
  - 1/7 주현절 첫째주·청지기주일, 성만찬예전, 청지기 임명, 기관월례회  
열린성경공부 시작
  - 1/14 정기제직회, 제162호 『풀밭』 발간
  - 1/20 1월 연합기도회, 남신도회 간찬회
  - 1/21 여신도회 주일, 각 위원회별 모임, 서울장로회 제45회 정기총회  
안성공원묘원 임시이사회
  - 1/28 제직수련회

- 
- 2/1 여신도회 1일 기도회(간찬회)
  - 2/3-4 청년부 수련회(영주 중앙교회당)
  - 2/4 주현절 다섯째주·총회 해외선교·설주일, 성만찬예전
  - 2/6 서울노회임시노회
  - 2/10 설맞이 이웃 초청행사(돈의동 선교연대)
  - 2/11 사순절 「한절 말씀과 묵상(고난의 잔이 은혜의 잔으로)」 달력 제작
  - 2/14 사순절 시작(재의 수요일)
  - 2/17 연합기도회
  - 2/17-18 어린이부 성경학교(교회, 어린이 대공원)
  - 2/18 사순절 첫째주일, 신학교육주일, 교회학교 졸업 및 진급축하, 안성공원묘원 정기이사회
  - 2/25 105주년 3.1절 기념주일

- 
- 3/1 3.1절 산상기도회
  - 3/2 여신도회 1일 기도회 및 3.1절 기념 에스더기도회
  - 3/3 사순절 셋째주일 / 성만찬예전
  - 3/5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주관, 서울 공덕교회당)
  - 3/9-10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 3/10 청년주일, 신익호 원로목사 구순 감사와 축하, 연합구역예배



3/16 연합기도회,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  
 3/22 기드온섬김용사운동 <김치나눔>  
 3/24 종려주일, 성인세례-이근욱 성도, 임주영 성도/ 유아세례-정운유(정원영·주은희 집사의 딸)  
 한나여신도회 헌신예배  
 3/25-30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하루에 세 번 기도하라”  
 3/27 최후의 만찬 기념 예배와 애찬  
 3/29 성(聖) 금요일 십자가 행진, 참회의 기도  
 3/30 부활절 계란 포장  
 3/31 부활주일, 부활새벽 촛불기도회, 성만찬예전, 돈의동 이웃 부활절 계란 나눔(지역선교부)  
 제32회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대상 : 신경숙 집사 / 최우수상 : 드보라여신도회 /  
 우수상 : 박아현 어린이, 강수연 집사 / 믿음상 : 루디아여신도회, 야곱남신도회 /  
 소망상 : 청소년부, 바울남신도회 / 사랑상 : 청년부, 에스더여신도회 / 인기상: 어린이부

4/2 여신도회 1일 기도회  
 4/6 한식합동 추모예배, 안성수양관 예배당  
 4/7 성만찬예전  
 4/14 초동특강① ‘순종’(김동민 감독) 영화시청  
 4/18 여신도회 서울·서울북연합회 교육강좌, 새발교회  
 4/20 연합기도회  
 4/23 제126회 서울노회 정기회-공덕교회당, 아브라함남신도회 봄 야외회-서울식물원  
 4/25 루디아여신도회 수련회-축령산 자연휴양림  
 4/28 야곱남신도회 헌신예배

5/2 여신도회 1일 기도회  
 5/5 어린이·청소년 주일-놀이마당 및 축하행사, 성만찬예전  
 5/12 아버지주일, 총동원주일(온가족예배)  
 연주 : 김수연 집사(바이올린/김창국·이호순 목사 따님),  
 손미래 성도 (오보에/전석종 성도 부인, 심숙희 권사 며느리)  
 특송 : 교회학교(영아유치부·어린이부·청소년부·청년부)  
 초동성가대 찬양제(할렐루야, 시온, 호산나 성가대)  
 5/17 기드온섬김용사운동 <김치나눔>  
 5/18 연합기도회  
 5/19 성령강림절, 성인세례-최재희 성도  
 5/21 기드온섬김용사운동<케밥 제작과 나눔-홍주민 목사 ‘YD 케밥하우스’>  
 5/23 여신도회서울연합회 ‘지구연합 찬양예배’, 동원교회당  
 5/26 성령강림 후 첫째 주일, 서리집사 임명 : 김명옥, 이승연, 조은애, 최정빈  
 장로임직 : 황혜련 권사  
 권사임직 : 김영효, 고영민, 김은희, 김지선, 이미경, 정춘, 조성희, 조윤희, 황신자  
 타교회 임직권사 인준 : 장창호, 김기희  
 5/28-6/19 ‘초동비밥’ 사역을 위한 1층 카페 리모델링

---

6/2 성만찬 예전  
 6/4 전체여신도회 수련회  
 주제 : “마음을 같이하여 내 집을 채우라” / 장소 : 초동교회 안성수양관, 경기도 이천 새터교회  
 6/9 총회선교주일, 에스더여신도회 헌신예배  
 6/15 연합기도회  
 6/16 상반기 새교우 간담회  
 6/23 6.25 민족화해주일, 1층 카페 리모델링 감사기도회, 시온성가대 헌신예배  
 6/30 본당 오르간 봉헌예배(연주-정춘권사)

---

7/2 여신도회 1일 기도회  
 7/7 성만찬예전, 제1회 구역대항 지구별 성경퀴즈대회 - 대상 : 교회동1지구  
 금상 : 교회동2지구, 은상 : 교회서2지구, 장려상 : 교회서2지구, 교회남1지구, 교회남2지구  
 7/20 연합기도회  
 7/20-21 영아유치부 여름성격학교(본교회당) - “예수님 감사나무 아래에서 함께 해요”  
 7/26-27 청소년부 여름수련회(안성 수양관) - “예수님과 함께 누려요”  
 7/28 호산나성가대 헌신예배

---

8/2-3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본 교회당) - “하나님과 친해져요”  
 8/2-4 호산나성가대 여름수련회(장소 : 목포양동교회)  
 8/4 성만찬예식, 평화통일주일  
 8/15-17 청년부 수련회(부산 온 리조트) - [With Jesus-쉽과 사귀]  
 8/17 연합기도회  
 8/23 제126-1차 서울노회 임시노회, 본 교회당  
 8/25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

9/1 창조절 첫째주일, 성만찬예전  
 9/3 여신도회 1일 기도회  
 9/8 거제도 애광원 바자회, 신임 장로선출을 위한 전교인기도회  
 9/12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지구연합이동강좌(주제 : 나의 예배 생활 성찰하기 / 강사 : 안선희 목사  
 - 이화여대 교목, 기독교학과 교수 / 장소 : 초동교회)  
 9/14 추석합동 추모예배(안성수양관 예배실)  
 9/15 남신도회 주일  
 9/22 공동의회(신임 장로 5인 선출을 위한 / 이선종 집사, 주준언 집사 선출)  
 9/27 공동의회 속회, 루디아 여신도회 헌신예배

10/4 여신도회 1일 기도회  
 10/6 창립 79주년 기념주일, 성만찬예전, 제53회 성가경연대회  
 10/15 대한적십자사 빵 나눔 봉사(기드온섬김용사운동)  
 10/20 추수감사주일 온가족예배, 돈의동 이웃 떡 나눔(지역선교부)  
 10/30 종교개혁주일

11/1 여신도회 1일 기도회  
 11/6 성만찬예전  
 11/10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1지구 총회(경서교회)  
 11/13 수능기도회  
 11/27 대림절 첫째주일, 연합구역예배

12/1 여신도회 1일 기도회  
 12/4 성만찬예전, 대림절기 행사 시작(성탄을 기다리는 하루말씀)  
 12/10 기드온섬김용사운동 대외봉사(강화군 단기 청소년 쉼터)  
 12/14 교회학교 겨울연합 워크숍(주관 : 교육위원회)  
 12/15 임시제직회(2025년 예산안 심의)  
 초동예술작품전시회 오프닝 행사(주관 : 아브라함 남신도회)  
 인문학 특강('김영진 시인이 바라본 황금찬 시인과 김영진 시 세계', 강사 : 김영진 원로장로)  
 12/21 돈의동 이웃들과 함께하는 성탄예배와 친교  
 12/22 2025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공동의회  
 성탄 축하 행사 및 전교우 선물 나눔  
 12/25 성탄새벽 촛불기도회, 성탄절 온가족예배  
 12/29 송년주일, 기드온섬김용사운동 헌신예배



## 교우소식

### 새교우

- 2024.1.28. 임주영 성도, 김민성, 김진욱, 김연재 어린이(분당구역)
- 2024.1.28. 최무정·최연희 성도(종로·성북·동대문구역)
- 2024.3.17. 이근욱 성도(종로·성북·동대문구역)
- 2024.5.5. 최재희 성도(중랑·노원·도봉·의정부구역)
- 2024.6.23. 김유진 성도(청년부)

### 복교

- 2024.2.11. 이영미 집사(에스더여성도회)
- 2024.4.7. 장지철 집사(다윗 남신도회), 장지현 집사(다윗 남신도회)
- 2024.12.29 이천광 목사·한정이 전도사

### 소천

- 2024.1.1. 故 김순행 권사(이명순 권사 시모, 이인휴 청년 조모)
- 2024.1.27. 故 이창훈 권사(이영미 집사 부친)
- 2024.2.3. 故 유정재 권사(박혜성 집사 모친, 채영근 집사 장모)
- 2024.3.17. 故 김연숙 권사
- 2024.3.23. 故 신순복 권사(장지철·장지현 집사 모친)
- 2024.4.14. 故 이희영 장로(이금희 집사 부친, 박영주 장로 장인)
- 2024.5.20. 故 김순애 성도(최재희 성도 모친)
- 2024.7.12. 故 김정숙 권사
- 2024.7.14. 故 최문선 권사(송윤진 집사 모친, 박상진 성도 장모)
- 2024.8.11. 故 유명규 권사
- 2024.8.20. 故 전재근 권사(유정열 권사 부군)
- 2024.9.3. 故 안정숙 성도(김종건 권사 모친, 정선훈 권사 시모)
- 2024.9.30. 故 최동익 장로(초동교회, 권순정 장로 부군)
- 2024.11.12. 故 김태완 집사(윤복래 집사 부군)
- 2024.11.19. 故 강병희 권사(전동훈 집사 모친, 김봉희 집사 시모)
- 2024.11.24. 故 이민호 장로(초동교회, 김은희 권사 부군)
- 2024.12.23. 故 박희상 권사(이현준 집사 조모)

<b>결혼</b>	2024.4.13.	전재환 집사(전흥빈 권사·황혜련 장로 아들)·단자령 성도
	2024.5.25.	문이세 성도(이복선 권사 손자·문태영 집사 아들)·박연화 성도
	2024.6.1.	김현우 성도(김창수 성도·이선옥 권사 아들)·이지수 양
	2024.6.29.	김득겸 성도(김영호·김지선 권사 아들)·박지영 양
	2024.10.19.	이희준 성도(이범식 집사·조윤희 권사 아들)·김가람 양
	2024.11.10.	김건중 군(최재희 성도 차남)·파타마와디 양
	2024.12.1.	황준혁 성도(한연희 권사 차남)·박현영 양

<b>부임</b>	2024.1.7.	차은종 교육전도사(어린이부)
	2024.2.18.	김미란 목사(영아유치부 사역)
	2024.4.21.	김효섭 권사(거제요양병원)
	2024.5.19.	이승덕 사무간사
	2024.10.13.	정선미 사무간사
	2024.11.24.	윤영주 집사(경비주임)

<b>헌물</b>	2024.1.7.	문신희 청년 부모(굴)
	2024.1.21.	전체여신도회(굴)
	2024.2.4.	故 이창훈 권사 유족(아가페식사)
	2024.2.11.	故 유정재 권사 유족(떡)
	2024.2.25.	이남선 권사(2층 난곡홀 전동 커튼막)
	2024.3.17.	거제도 애광원(굴)
	2024.3.24.	노계옥 권사(부활절 달걀)
	2024.3.31.	故 신순복 권사 유족(아가페식사)
	2024.4.14.	우문환·윤명임 권사(호산나 성가대 가운)
	2024.4.14.	전흥빈 권사·황혜련 장로(아가페식사)
	2024.4.21.	박영주 장로·이금희 권사(떡)
	2024.4.28.	김창국·이호순 목사(아가페식사, 타올)
	2024.5.12.	권지영 권사(떡)
	2024.5.19.	박창순·김재은 집사(전도용 물티슈)
	2024.6.2.	문태영 집사·주명희 성도(아가페식사)
	2024.6.2.	김창수 성도·이선옥 권사(떡)
	2024.6.16.	이선종 집사(종이컵, 커피, 차종류)
	2024.7.7.	김영호·김지선 권사(수박)
	2024.7.14.	이근욱 성도(주방용 위생장갑)
	2024.7.21.	故 최문선 권사 유족(떡)
	2024.7.21.	이종현 청년(베다니카페 간식)
	2024.8.18.	故 유명규 권사 유족(떡)

헌물	2024.8.25.	故 전재근 권사 유족(떡)
	2024.9.8.	故 안정숙 성도 유족(떡)
	2024.10.6.	故 최동익 장로 유족(떡)
	2024.10.6.	김성진·김지연 집사(통돼지 바비큐)
	2024.10.13.	선정모 집사(아가페식사)
	2024.10.20.	이범식 집사·조윤희 권사(아가페식사)
	2024.12.1.	故 이민호 장로 유족(아가페식사)
	2024.12.8.	김영진 장로(스토리텔링 성경 25권 2세트, 성경의 노래 5권 2세트)
	2024.12.8.	한연희 권사(떡)
	2024.12.15.	양선미 집사 가정(아가페식사)
2024.12.15.	노계옥 권사(본당 실크 강대상보)	
위촉	2024.12.1.	손성호 담임목사(종로경찰서 경목)
이사	2024.3.3.	전흥빈 권사·황혜련 장로(양천구 목동)
	2024.5.19.	서의경·오준영 집사(양천구 목동)
	2024.5.26.	최승도·홍영애 집사(구로구 연동로)
	2024.8.11.	임광택 장로·송희경 권사(서대문구 홍제동)
	2024.8.18.	조은애 집사(인천시 서구)
	2024.12.29.	이민정 권사(성남 중원구)
사임	2024.4.7.	장유숙 사무간사
	2024.9.6.	이승덕 사무간사
	2024.11.24.	박학송 목사
임명	2024.2.25.	최윤아 성도(시온성가대), 정해옥 성도, 송민서 성도(호산나성가대)
	2024.7.21.	김봉균 성도(시온성가대 반주자)
입원	2024.1.7.	김기련 권사
	2024.7.7.	이원태 목사·정경희 권사
	2024.7.7.	박계숙 권사
	2024.9.15.	선정모 집사
전역	2024.4.10.	김요한 청년(김성진·김지연 집사 아들)

**안성공원  
묘원을 위한  
장지기증**

2024.8.25. 故 유명규 권사 유족(박홍준 집사 외)  
2024.9.1. 김경행·윤양옥 권사

**연주회**

2024.2.29. 이희명 성도(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2024.9.9. 정춘 권사(한신대학교 주최 '지역주민들을 위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2024.9.21.-9.25. 서현석 장로, 서진 집사(2024 헤이리 국제 음악제)

**개업**

2024.5.12. 김기희·장창호 권사(종암우리점핑 & 체온테라피)

**공연**

2024.4.6. '리어, 파고다 공원에 오다'(연출 : 박정근 권사, 기획 윤명자 권사)  
2024.6.1. 권우용 집사 지휘, 이소애 성도 출연(화울림 여성합창단)  
2024.10.1. 신수연 집사(제21회 성동구립 여성합창단 정기공연)

**전시회**

2024.11.21.-2025.5.6. 박정진 집사(한국 현대 도자공예 : '영원의 지금에서 늘 새로운')

**초청 방문**

2024.12.11. 김순중 권사(피플투피플 한국본부 고문, 국제친선의밤 행사 참석/장소: 공군회관)



## 편집후기



이선옥 권사  
(미디어문화위원장)

주님! 새벽에 깨어나 기도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숨소리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어둠은 머물고 있지만, 당신의 빛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제 서서히 광명의 세상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초동교회 미디어문화위원회로 개명하여 시작된 풀밭 162호는 주일학교 어린이 글과 그림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므로, 그들의 순수하고 생생한 교회 사랑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데 중점을 두 었었다. 초동교회 교우들의 깊은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여 풀밭 162호는 거의 남 아 있는 책이 없다.

어김없이 163호를 준비하는 계절이 찾아왔는데, 2024년 기록적인 폭염중에도 거듭된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초동 79년, 믿음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초동교회 교회 창립 79주년 기념호 를 발간하게 되었다. 특집호 뿐 아니라, 신앙고백, 서간문, 시, 산문등이 게재되었다.

항상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고뇌하는 초동교우들의 믿음생활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분주하게 원고청탁으로 뛰어다니던 그 결실이 눈 앞에 있는데, 평가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 나..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심정이다.

끝으로 풀밭지를 사랑하시는 교우들과 손성호 담임목사님, 그리고 편집위원들께 감사를 드린 다. 특히 귀한 시간 내시며 함께 하시고 애쓰신 임하늘 목사님과 김태현 집사님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린다.